

# 慶南地域 寺址 출토 高麗靑磁의 편년과 특징

강 정 미\*

## 〈목 차〉

- I. 머리말
- II. 경남지역 사지 조사현황과 출토양상
- III.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의 특징과 분류
- IV. 제작요지에 따른 특징과 편년
- V. 맺음말

## 국문요약

최근 고려시대 청자 연구는 청자의 생산과 소비체제에 대한 관점으로 연구의 폭이 넓어졌다. 그 가운데 고급청자를 사용하는 계층인 승려가 거주했던 사지에서 출토된 도자편은 청자의 시기별 수요와 공급관계를 살펴볼 수 있는 중요한 분석 대상이 되고 있다.

지금까지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사지는 사천 본촌리폐사지, 산청 지곡사지, 울산 운흥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만덕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등이 있다. 이들 유적에서는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청자편이 출토되었고, 다양한 기종과 양·조질의 청자들이 수습되어 경남지역 사지에서 사용된 청자의 특징을 뚜렷하게 밝힐 수 있다.

본 논문은 경남지역 사지 7곳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종, 장식기법, 번조법을 바탕으로, 요지 생산품과 편년유물과의 비교·검토를 통해 청자의 제작요지와 제작시기를 밝혀 보았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 가운데 고급 청자는 강진산일 것이라는 막연한 추정을 구체적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고, 각 유형의 편년을 새롭게 설정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진해 태평동요지에서 생산된 청자와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와의 비교를 통해 제작지와 편년을 세웠다.

주제어 : 慶南地域 寺址, 高麗靑磁, 康津 龍雲里窯址, 鎭海 太平洞

\* 동아시아문화연구소

## I. 머리말

최근 도자사 연구는 이전의 답습적인 고려청자의 발생이나 干支銘 청자의 시기문제, 傳世品 등의 연구에서 실질적인 청자의 생산과 소비체제에 대한 연구로 전환하고 있으며, 고고학적인 발굴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sup>1)</sup> 그 가운데 고급청자를 사용하는 계층인 승려가 거주했던 사지에 대한 발굴조사와 분석은 청자의 시기별 수요와 공급관계를 추정하게 해준다.<sup>2)</sup> 또한 불상, 석조물 등 불교유물과 함께 수습·확인되는 점은 사지에서 사용된 청자들의 양상을 좀 더 명확히 살펴볼 수 있는 장점이 된다.

현재까지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사지는 사천 본촌리폐사지, 산청 지곡사지, 울산 운흥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만덕사지, 부산 용당동유적이 있으며,<sup>3)</sup> 이들 유적에서는 양질과 함께 조질의 청자들도 함께 수습되고 있다. 또한 다양한 기종과 고려시대 전반에 걸친 출토양상을 보이고 있어, 고려시대 사찰에서의 청자사용과 경남지역 사지의 특징을 도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뿐만 아니라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고급청자는 대부분 강진청자와의 관련성을 보이고 있어 경남지역까지 강진청자가 수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

康津은 고려시대 전 기간에 걸쳐 청자를 제작한 요지이자, 公的인 수요를 담당한 官窯的 성격의 磁器所로서 청자 제작의 중심지였다. 강진에서 생산된 최고급의 청자는 수도인 開京에 공급되었고, 왕실 외에 일부 귀족들과 관청, 사찰 등에서 주로 고급의 청자를 사용하였으리라고 생각된다. 강진지역에서는 지표조사를 통해 188개소의 요지가 확인되었고, 그 중 大口面 龍雲里, 沙堂里와

1) 청자의 생산지와의 관계 및 생산지에서의 양상이 소비지에서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에 대한 문제를 규명하고자 하는 논문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張南原, 張南原, 2001, 『康津』 유형의 공유 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미술사학연구』231, 한국미술사학회; 李鍾玟, 2004, 『고려청자의 생산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도자기의 생산과 소비』(2004년 용인대학교박물관 학술대회), 용인대학교 박물관, 11~19쪽.

2) 이종민, 2004,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 박물관, 95~121쪽)이 있으며, 실제적 발굴조사를 통해 여주 원향사지, 여주 고달사지, 안성 봉업사지, 파주 혜음원지, 보령 성주사지, 익산 미륵사지 등의 분석이 이루어졌고, 최근에는 사지에 대한 연구사가 정리되었다.(任眞娥, 2007, 『高達寺址 出土 磁器 考察』 『高達寺址II』, 기전문화재연구원, 876~892쪽)

3) 부산 용당동유적은 건물지로서 보고자는 사역내의 부속건물일 것으로 추정하였는데, 출토품 가운데 ‘○守寺’, ‘月天寺’ 등의 사명이 확인되고 소조불두, 또한 청자가운데 향완 등의 기종이 확인되고 있어 본 논문에서는 寺址의 범위에 포함시켰다.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부산 용당동유적』)

七良面 三興里 요지가 발굴조사 되어 강진 청자의 면모를 어느 정도 밝히게 되었다.<sup>4)</sup> 그런데 전국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고학 발굴을 통해 개경과 강진지역을 제외한 생활유적에서 강진산 청자들이 출토되고 있어 강진의 청자가 국가의 공납용만이 아니었음을 추측케한다. 이러한양상은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경남지역 7곳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조형적 특징을 바탕으로 요지생산품과 편년유물과의 구체적인 비교작업을 통해 제작요를 명확히 밝히고자 한다. 이와 함께 제작시기를 추정하여 편년을 설정하고,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특징을 도출해내겠다.

## II. 경남지역 사지 조사현황과 청자출토 양상

근래까지 경남지역에서 고고학 발굴을 통해 조사된 고려시대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청자는 강진에서 생산된 다양한 기종의 양질청자들과 지역에서 제작된 조질청자들이 함께 확인되고 있다.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고려시대 사지는 사천 본촌리폐사지, 산청 지곡사지, 울산 운흥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만덕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총 7곳이다. 본 장에서는 7곳의 사지 조사현황과 청자출토 양상을 간략히 살펴보고자 하겠다.

### 1. 泗川 本村里廢寺址<sup>5)</sup>

국립경상대학교 박물관에서 1995년 7월 19일부터 10월 6일까지 80일간에 걸쳐 경남 사천시 곤명면 본촌리 3-1번지 일대에 위치하고 있는 고려시대의 사지와 생활유적, 청동기시대의 주거지 18동과 석관묘 4기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비로자나불이 主尊인 가람으로 파악되나 현재 남아있는 유구로서 가람의 배치나 규모를 추정하기는 어렵다. 출토품 중에서 ‘資福寺’라는 명문이 나와 사명을 알 수 있는데 국가 방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 호국불교의 성격을 띤 가람으로 추정된다.<sup>6)</sup>

<sup>4)</sup> 해강도자미술관, 1992, 『강진의 청자요지』;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요지 I』; 국립광주박물관, 2004, 『강진 삼흥리요지 II』; 국립중앙박물관, 1996,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도판편』; 국립중앙박물관, 1997,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본문편』.  
<sup>5)</sup>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사천 본촌리 폐사지』.

출토유물은 기와, 고려청자, 분청사기, 백자로 기와와 자기는 고려시대 유물이 중심을 이룬다. 출토된 청자에는 대접, 접시, 완, 잔, 개, 호, 잔탁 등이 있으며 대접과 접시의 출토비율이 높다. 완은 모두 기벽이 사선을 이루며 내저에 좁은 원각이 있는 한국식해무리굽완이다. 이들은 태토가 정선되고 발색이 좋은 양질의 것들이다. 문양은 상감청자의 출토비율이 낮고 소문청자가 대부분을 이루는데 일부에 연판문과 모란문을 음각과 양각기법으로 시문하기도 하였다. 상감청자에는 연당초문, 국화절지문, 국화문을 흑백상감하고 있다. 번조받침으로는 모래섞인 내화토를 받친 예가 가장 많이 보이며 규석을 받친 예는 매우 소량이다.

## 2. 山淸 智谷寺址<sup>6)</sup>

산청 지곡사지는 고려 전기 禪宗의 5대 山門의 하나였으며, 眞觀(912~964)과 慧月(10~11세기)등의 高僧이 이 곳에서 중흥을 이루었고 19세기경까지 법등을 유지했던 유서 깊은 사찰 가운데 하나이다. 산청 지곡사지의 조사는 경상남도와 산청군에서 추진하는 지리산 일대 중요문화유적지에 대한 중·장기적인 보존정비 차원에서 실시되었다. 금당지의 규모는 길이 10.5m, 폭이 7.7m이며 정면 3칸, 측면 3칸 규모이다. 건물의 정중앙에는 불상대좌가 위치하며 건물 주변에서 초석과 기단석열 등이 확인되었다. 또한 건물지에서 ‘智谷寺’銘 막새가 출토되었다.

출토된 자기류는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으로 그 중 청자는 가장 소량이다. 수습된 청자들은 대부분 파편들이지만 기형이 파악되고, 시기와 특징을 추정할 수 있는 상태이다. 출토되는 기종으로는 대접, 접시, 완, 개, 잔탁, 병 등이 있으며 시기적으로는 10세기에서 14세기까지 고려 전 기간에 걸친 특징이 나타난다. 출토되는 유물 중에는 내저면에 원각이 뚜렷하며 넓고 낮은 해무리굽을 가지는 한국식해무리굽완이 다수 확인되는데 이들은 접지면에 백색내화토를 얇게 발라 번조하였다. 11~12세기에 해당하는 유물에는 화형접시, 잔탁, 주자, 병 등 기종이 다양해지고, 당초문, 앵무문, 모란문, 연판문 등을 음각기법으로 세밀하게 시문하기도 하였다. 외면에 연판문을 음각한 연판문대접, 접시와 압출양각기법으로 찍어낸

<sup>6)</sup> 본촌리사지에서 출토된 기와 중 『甲寅年造資福寺.....』라는 명문이 발견되었다. 資福寺는 世宗 6년(1424)에 폐지되었으며 資福寺는 특정지역의 특정사찰을 지칭한 고유명사가 아니라 전국적으로 분포했던 보통명사임을 알 수 있다. 보고서에서는 출토된 유물 중 가장 상한으로 보는 해무리굽청자를 통해 甲寅年을 顯宗 5년(1024년)으로 보고 자복사의 운영기간은 1024~1424년으로 보았다.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앞의 보고서.)

<sup>7)</sup>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3, 『산청지곡사지』.



대한 지표조사를 실시하여 사찰과 관련된 수조, 석조물, 석각문자 등을 확인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출토된 유물 중에는 통일신라 말기로 추정되는 수막새들과 고려시대의 것으로 추정되는 암막새, 조선시대로 연대가 확인되는 막새 등이 확인된다. 자기류로는 11세기의 고려시대로부터 19세기까지의 유물들이 있다. 가장 빠른 것으로는 청자접시가 11세기대로 편년되고, 석간주 각병이 19세기로 추정된다. 석조물 중에서는 석등(1693), 수조(1728,1732,1762), 석교(1749, 1751)6개의 연대가 확인되었다. 또한 현재 통도사에 보관되어 있는 목판에 (1668~1709)의 연대가 있다. 또한 『成宗實錄』에 나타난 상왕의 반란사건(1477)로 보아 조선시대에는 매우 번창한 사찰임을 알 수 있다.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살펴보면 대접, 접시, 잔탁의 기종만이 확인되며 이른 시기의 것은 백색내화토빛음, 모래섞인 내화토빛음을 받쳤으며 규석을 받친 고급품도 출토된다. 반면 시기가 늦은 유물들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음·양각기법으로는 시문된 예가 없고 상감기법으로 운문, 뇌문, 국화절지문, 운학문, 연당초문, 연판문, 여지문, 모란절지문 등을 장식하였는데, 전체적으로 유물은 14세기대의 것들이 많이 수습되었다.

#### 4. 陝川 靈岩寺址<sup>9)</sup>

합천 영암사지는 동아대학교박물관에 의해 1984년<sup>10)</sup>과 1999년<sup>11)</sup>, 2002년<sup>12)</sup>까지 세 번의 조사를 통해 영암사지의 전모와 성격을 밝혀냈다. 영암사의 가람구조는 佛, 法, 僧을 엄격히 구분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3단의 단차를 두고 계단식으로 각각 별도로 배치하였으며 측면 단칸의 回廊式 건물이 유행하였고 지붕은 맞배 형태이다.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유물들은 기와가 대부분이며 토기편, 청자편, 벼루, 청동제 간두식 등이 부분적으로 기와 파편에 혼재된 상태로 수습되었다. 기와들은 통일신라시대대로 편년될 수 있는 연화문, 비천문이 시문된 막새기와를 비롯하여

9) 동아대학교박물관, 1985, 『합천영암사지 I』

동아대학교박물관, 2005, 『합천영암사지 II』.

10) 1984년 가을 경상남도 합천군 가회면 순내리 산 139번지 일대에 분포하고 있는 영암사지의 금당지를 비롯한 서금당지, 주변 부속 건물지와 석등, 석탑, 회랑지에 대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11) 제 2차조사 (A,B,지구)석탑 아래에 위치하는 건물지를 중심으로 지난 1999년 7월 20일부터 동년 10월 18일까지 실시하였다.

12) 2002년 8월 8일부터 동년 10월 31일까지 실시되었다.(제3차조사<C,D지구>)

귀목문이 나타나는 고려후기로 편년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어서 대략적인 사용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토기편 또한 통일신라기로 편년되는 대호와 고려시대 편호 파편, 인화문토기들이 주를 이루고 있다.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청자편은 수량은 많지 않지만 대접, 접시, 완, 잔, 잔탁, 개 등의 기종이 파악되고 시기적으로는 11세기~14세기말까지에 해당된다. 11~13세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백색내화토와 모래섞인 내화토 빚음을 받쳐 구웠고, 13~14세기에 해당하는 유물들은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다. 문양은 국당초문, 파수문, 연판문이 음각문으로 시문되었고 연판문이 양각으로 시문되었다. 또한 압출양각기법으로는 운학문, 국화절지문을 시문하였고, 상감기법으로는 국화절지문, 운학문, 우점문 등을 흑백상감하고 있다.

##### 5. 金海 德山里寺址<sup>13)</sup>

김해 덕산리사지는 각성산의 남서쪽 해발 49~53m의 구릉상에 위치하고 있다. 조사구역은 출토유물과 토층에 의해 크게 두 문화층으로 구분되는데 상층은 회갈색사질토에 해당되며 건물지와 관련이 있는 유구가 확인되고 유물은 기와, 고려청자, 분청사기, 토기 등이 있다. 하층은 암흑색사질토에 해당되며 주철과 석렬 등이 확인되고, 유물은 상층과는 달리 기와, 자기 등은 출토되지 않고, 통일신라시대부터 고려 초기로 추정되는 토기와 목기 등이 있다. 덕산리사지는 기와, 고려청자, 분청사기, 토기 외에 금동여래입상, 금동보살입상, 금동경패, 금동관불, 소조불 등이 출토되어 유구의 성격이 사지임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으나, 정확한 사명은 확인할 수 없었다.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류는 파편상으로는 천점이 넘으며 그 중 기형이 파악되는 유물을 선별한 것이 450여 점에 달하는 것으로 청자의 출토량이 매우 많다. 대접, 접시, 완, 잔, 잔탁, 합, 뚜껑, 향로, 향완, 받침류, 호, 병, 상형청자, 도침 등으로 일반 유적지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다양한 기종의 유물이 출토되고 있다. 선해무리굽의 청자완에서부터 간지명 청자에 이르기까지 고려 전 기간에 걸친 양질의 유물의 양상을 파악할 수 있었다. 가장 출토량이 많은 대접과 접시의 경우에는 양질 뿐만 아니라 조질계의 유물들도 함께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해무리굽완이 다수 확인되며 대부분 양질에 해당한다. 잔탁, 향로, 받

<sup>13)</sup> 경남문화재연구원, 2006, 『김해덕산리사지』. 김해 덕산리사지는 정식보고서는 아직 발간되지 않았는데, 본 논문에 도면을 게재토록 허락해주신 경남문화재연구원 학예연구실장님께 감사드린다.

침류, 향완, 상형청자, 도침 등은 일반 건물지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없으며 모두 양질의 것으로 덕산리사지의 성격을 규명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접시편 중에는 우점문을 중심문양으로 상감하고 내저중앙에 ‘壬申’銘(1332)을 흑상감한 것이 있다. 사진 1 간지가 새겨진 청자는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강진에서만 생산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干支銘 청자의 출토를 통해 덕산리사지에서 사용된 양질청자의 공급처를 추측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 6. 釜山 萬德寺址<sup>14)</sup>

부산 만덕사지는 부산시 기념물 제3호로 지정되어 있으며 고려 恭愍王이 忠惠王의 서자 釋器를 삭발하여 幽閉시켰던 만덕사로 추정되어 왔다. 부산직할시립박물관에서는 만덕사지의 정확한 성격규명과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금당지를 중심으로 발굴조사를 실시하였다. 조사결과 금당지는 장방형 평면구조에 잘 치석된 화강암 벽석을 이용해 기단을 축조한 것으로 금당지로서는 매우 규모가 큰 편에 속한다. 금당지 이외의 구조물로서는 북기단과 동기단 측면에서 배수 시설 1개소가 확인되었다.

만덕사지에서는 만덕사라는 사명을 알 수 있는 유물은 확인할 수 없었고, ‘祇毗寺’라는 명문을 1·2차 조사에서 수습할 수 있어 사명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기록에는 기비사라는 사명이 없어 조선시대이전에 창건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해준다. 치미나 와전에서 통일신라말기의 특징이 파악되어 만덕사는 통일신라말에서 고려말 또는 조선초기까지 건재하였던 사찰로 파악된다. 출토유물을 통해보면 중심시기는 고려시대라 판단된다.

금당지와 전방축대 위에서 검출된 유물은 와전류, 도자기류, 토기류, 석조물 등 그 종류는 다양하나 와전류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청자의 경우 1차 발굴조사 시 수습된 12세기대의 소문청자 중에는 규석을 받친 예도 확인되며, 상감청자 중에도 일부 편중에 규석을 받친 고급의 청자가 확인된다. 2차 발굴시에는 조질의 청자접시와 함께 모란문을 내면에 정교하게 음각한 접시가 확인되었고, 팔각 접시편도 확인된다. 1차조사에 비해 2차조사에는 분청사기의 양이 많은 점이 주목된다. 3차조사에서는 청자가 가장 많이 출토되었다. 해무리굽완이 다수를 이루지만 대부분 저부편이며, 연당초문이 흑백상감된 대접 편도 출토되었다.

14)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부산 만덕사지』.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8, 『부산 만덕사지Ⅱ』.

북천박물관, 2007, 『부산 만덕사지Ⅲ』.

## 7. 釜山 龍塘洞 遺蹟<sup>157)</sup>

부산 용당동유적은 부산시 용당동 산 51번지에 위치하며 공동주택건설을 위해 구제발굴 되었다. 발굴조사를 통해 고려시대의 건물지 3동, 석렬, 축대, 와요, 폐기장 등이 확인되었다. 건물지에서는 청동제품과 토기편, 소조불두, 고려청자편, 도기편, 기와편들이 출토되었으며 석렬, 축대 등에서도 고려시대를 중심으로 한 기와편과 청자편들이 출토되었다. 특히 기단석렬에서는 암기와의 배면에 “○守寺”와 “月天寺”의 寺名이 확인되었는데 두 기와가 태토와 소성도, 제작기법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현재로서는 사명에 대한 시기적 선후를 파악하기 힘들다고 조사자는 밝히고 있다. 그러나 사명이 나타난 명문와의 출토나 불두의 발견, 고급의 청자출토로 이 유적이 寺址와 관련된 유적으로 추정하기에는 충분할 것으로 생각된다.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는 발, 대접, 접시, 완, 잔, 마상배, 뚜껑, 매병, 병, 주자, 대반, 향완, 장고, 파수 등의 기종으로 반상기명인 대접과 접시의 출토비율이 가장 높으며 건물지와 석렬을 중심으로 출토되고 있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토와 모래섞인 내화토빛음의 출토량이 높아서 중심시기를 11~13세기로 보는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되며, 규석을 사용한 고급접시가 두 점 확인되고 있다. 문양은 연판문을 음각기법으로 새기고, 연판문, 포도문, 국화당초문 등은 압출양각기법으로 새기고 있다. 상감기법으로는 봉황문, 국화문, 여의두문, 연당초문, 뇌문, 운학문, 연주문, 모란당초문, 당초문, 여지문, 우점문, 모란절지문, 화훼문 등이 다양하게 흑백상감 되었다. 특히 철화기법으로 초화문을 새겼는데, 사진 2 이러한 초화문이 새겨진 대접은 양산 물금 가촌리유적<sup>16)</sup>에서 동일하게 발견되며 사진 3 진해 태평동유지<sup>17)</sup>에서 이러한 초화문의 대접이 생산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사진 4 초화문이 새겨진 대접을 비롯하여 대접과 접시에서 특히 조질로 분류되는 청자들이 출토되고 있는데 앞에서 언급하였던 진해 태평동유지와 관련성이 보이며, 양질의 청자 중에는 모란당초문과 봉황문을 상감하고 규석을 받친 고급의 접시와 함께 강진산의 포도문과 국화당초문 청자편이 출토되고 있다.

157)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앞의 보고서.

16)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6, 『梁山勿禁佳村里遺蹟-양산가촌리 공동주택부지내 유적』

17)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1999, 『鎭海 太平洞 靑磁窯址』

### Ⅲ.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의 특징과 분류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7곳의 사지에서 출토되는 고려청자는 사지의 존속기간을 추정하는데 매우 큰 역할을 한다. 연대추정의 근거는 청자의 기종, 기형, 문양, 번조법 등이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특징들은 청자의 제작요지를 파악할 수도 있기 때문에 면밀히 살펴보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 본 장에서는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를 기종과 장식기법에 따른 문양, 번조법을 분류하고, 요지 생산품 및 편년유물과 구체적으로 비교함으로써 청자의 제작요와 제작시기를 추정해 볼 것이다.

#### 1. 기종

경남지역 사지에서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는 기종은 접시로 기형 역시 다양하다. 다음은 대접, 완, 잔의 순으로 대접, 접시, 완, 잔은 가장 일반적인 생활 기명으로 사지뿐 아니라 분묘, 성지, 건물지 등에서도 가장 많은 출토량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기명은 양질의 청자들과 함께 조질청자도 일부 포함되어 있어 동일한 시기와 공간에서 양분화 된 청자의 사용을 추정하게 해준다. 이외에 출토되는 기종으로 잔탁, 뚜껑, 호, 병, 매병 등이 있으며, 소량이지만 마상배, 향완, 향로, 대반, 주자, 합, 상형청자, 장고, 항, 벼루 등이 출토되고 있다. 특히 잔탁이나 향완, 향로는 공양구나 의식기로 사용되었기 때문에 사지의 성격을 규명해주는 기종이다. 또한 상형청자, 장고, 벼루 등의 경우도 특수기종으로서 사지에서의 청자사용이 매우 다채로웠음을 보여준다. 그림 2

본 논문에서는 정확한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대접, 접시, 완, 잔, 잔탁, 뚜껑, 상형청자, 향완, 향로를 중심으로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의 특징을 밝혀보고자 한다.

##### 1) 대접

대접은 5 유형으로 분류가 가능하며 각 유형은 시기적인 변화를 보인다.

I 유형 : 사천 본촌리 폐사지 출토 2점의 청자양각연판문대접이 있다. 구연은 직립하며 동체부는 곡면을 이룬다. 굽은 U자형으로 낮고 접지면이 좁다. 내저에는 원각이 돌아가며 외면에는 양각기법으로 부조연판문을 장식하고 있다. 이와 유사한 청자양각연판문대접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되고 있다. 사천 본촌리 폐사지 출토 대접의 연판문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 대접의 연판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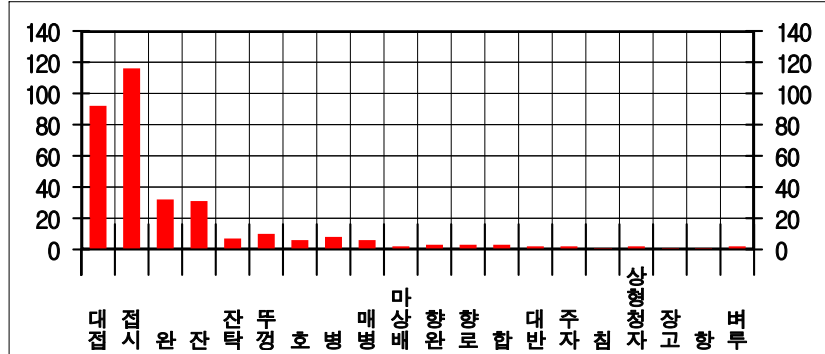


그림 2.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의 기종별 출토현황

보다 양감은 떨어지지만, 구연이 부드럽게 곡선을 이루고 동체가 직립하며 낮은 굽 등에서는 양자간 공통점이 있다.

II 유형 : 김해 덕산리 사지 출토 청자양각연판문대접 2점과 부산 만덕사지 출토 청자압출양각당초문대접 1점이 있다. 구연은 결실되었으나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 대접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내만했으리라고 추정된다. 동체부는 사선형을 이루고, 굽은 U자형으로 낮다. 내저에 원각이 있고 외면에는 음각기법으로 연판문을 장식하거나 내면에 압출양각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하고 있다. 내면을 압출양각으로 장식하는 기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다양하게 출토되며, 연판문이 음각으로 시문되는 것은 부조연판문이 퇴화된 양식이다. II 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출토품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면서도 I 유형에 비해서는 후행하는 양식으로 판단된다.

III 유형 : 사천 본촌리 폐사지에서 출토된 2점의 청자대접과 부산 용당동 유적에서 출토된 청자대접 2점이 있다. 구연은 약하게 외반하고 동체부는 곡면을 이룬다. 굽은 직립하고 1cm이상의 높은 굽과 평저가 함께 확인된다. III 유형의 대접은 태토에 사립이 다량 섞여 있고, 발색이 좋지 않으며 외면에 물레 회전흔이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인데 I, II 유형에 비해 질적으로 차이를 보인다. 특히 부산 용당동 유적에서 출토된 대접의 외면에는 철화당초문을 시문하고 있어 주목된다. 조절의 III 유형 대접은 진해 태평동 요지에서 생산된 청자들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강진청자의 영향과는 차별되는 청자로 주목된다.

IV 유형 : 부산 용당동유적과 사천 본촌리폐사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4점이 있다. 구연은 내만하며 동체부는 곡면을 이룬다. 굽은 U자형으로 낮고 비교적 정교하게 만들었다. 상감기법을 이용하여 문양을 시문하고 있는데 구연부와 저부에는 문양대를 배치하고 중심문양으로는 국화절지문, 여지문등을 장식하

고 있다. 이러한 대접의 형태는 明宗智陵에서 출토된 靑磁象嵌荔枝文대접(1255년하한)과 사진 5 靑磁象嵌花卉折枝文‘己巳’銘대접(1329)의 기형과 굽 깎음이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6 특히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IV 유형의 대접 가운데는 상감을 하기 위해 선각을 한 뒤 백토를 넣지 않고 번조한 것들이 확인되는데, 청자 제작과정의 간편화로 인한 결과이거나 제작요의 특성으로 추정된다.

V 유형 : 부산 용당동유적과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3점이 있다. 구연은 내만하고 동체부는 곡면을 이룬다. 굽은 직립하며 낮다. 구연과 동체부는 곡선형으로 IV 유형과 동일하지만 굽의 형태가 낮고 직립하는 굽으로 변화하였다. IV 유형과 V 유형의 굽 차이는 시기적인 선후를 보여주며 IV 유형의 U자형 굽은 비교적 정교하게 깎는 특징이 있고 일부에 규석받침을 사용하고 있어 고급청자에 해당하며, V 유형은 그에 비해 굽깎음이 정교하지 않고 일부에 모래받침을 사용하고 있어 시기적으로 후행하는 양식임을 알 수 있다. 문양에서도 V 유형의 경우 IV 유형에 비해 도식화되고 일부에 인화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후행하는 양식임을 확인할 수 있다. V 유형의 대접은 靑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접(1365~1374)과 기형, 굽의 형태, 번조받침까지 매우 유사하여 고려말기에 제작되는 유형임을 확인할 수 있다. 사진 7

대접의 5가지 유형은 시기적으로 I 유형에서 V 유형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요지 출토품 및 편년유물들과 비교하였을 때 유사하게 전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강진 용운리 10호-2층 생산품과 유사점을 보이는 I·II 유형과 명종지릉출토품(1255년하한) 및 간지명 청자와 유사점을 보이는 IV·V 유형을 통해 강진청자가 유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III 유형은 다른 유형에 비해 질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양식적으로 진해 태평동요지의 생산품과 일치하고 있어 경남지역 사찰에서는 강진요생산의 대접과 경남지역요에서 생산한 대접을 함께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 2) 접시

접시는 기형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는 기종으로 8유형으로 분류된다.

I 유형 : 사진 본촌리폐사지 출토 접시 1점이 있다. 구연은 외반하여 전을 이루고 동체부는 절요형이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만들었고, 굽은 외반하며 1cm 이상의 높은 굽이다. I 유형은 강진 용운리 9호와 10호-1층에서 확인되는데, 사진 본촌리폐사지에서 출토된 접시는 구연이나 저부 등 기벽이 더 두껍게 제작되었다. I 유형은 출토 예가 1점이지만 가장 이른 양식의 접시로 주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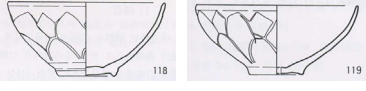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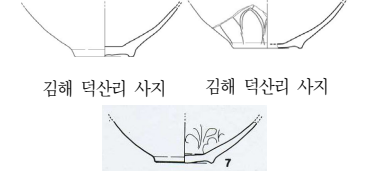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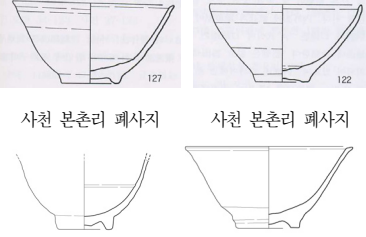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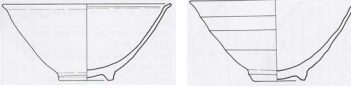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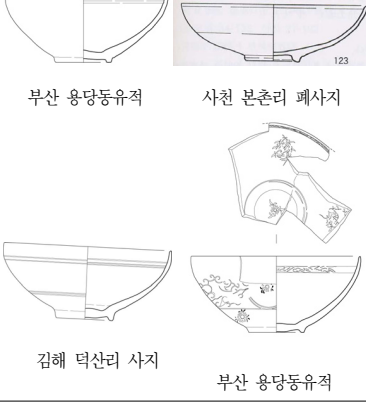




	경남지역 사지 출토	요지 생산품 및 편년유물
I	 <p>사천 본촌리 폐사지      사천 본촌리 폐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p>
II	 <p>김해 덕산리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p> <p>부산 만덕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p>
III	 <p>사천 본촌리 폐사지      사천 본촌리 폐사지</p> <p>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용당동유적</p>	 <p>진해 태평동요지      진해 태평동요지</p>
IV	 <p>부산 용당동유적      사천 본촌리 폐사지</p> <p>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유적</p>	 <p>明宗智陵출토 靑磁象嵌荔枝文대접 (1255년하한)</p>  <p>靑磁象嵌花卉折枝文 '己巳'銘대접 (1329)</p>
V	 <p>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용당동유적</p> <p>김해 덕산리 사지</p>	 <p>靑磁象嵌蓮唐草文 '正陵'銘대접 (1356~1374)</p>

그림 3. 경남지역 사지 출토 대접

Ⅱ유형 : Ⅱ유형은 구연과 기벽을 화형으로 만든 접시로, 압출양각기법의 시기가 떨어지는 점에 기준하여 다시 둘로 세분할 수 있다.

Ⅱ-1유형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1점 출토되었다.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부는 곡면이며, 굽은 직립하고 낮다. Ⅱ-2유형은 압출양각 접시로서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되었으며 Ⅱ-1유형과 형태는 동일하다. Ⅱ-1 유형과 Ⅱ-2유형은 구연과 기벽이 화형을 이루는 면과 속성들이 동일하지만 Ⅱ-2유형은 틀을 이용한 압출성형기법을 사용하고 요철이 강한 특징이 있으며 일명 국화형접시라고 한다. Ⅱ-1유형과 유사한 화형접시는 강진 용운리 9호와 10호-1층에서 확인되는데, 사지에서 출토된 접시는 굽이 낮고 화형의 표현이 둔화되었다. Ⅱ-2유형은 강진 사당리 14호 출토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靑磁象嵌“丁亥”銘청자에서도 동일한 화형접시를 찾아볼 수 있다. 사진 8 국화형접시는 편년 유적들을 살펴보았을 때 13세기 후반에서야 등장하는 기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후 간지명 청자가 제작되는 14세기전반까지 사용되었다.

Ⅲ 유형 : 사천 본촌리폐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4점 출토되었다. 구연이 외반한 예가 확인되었지만 대부분 구연이 직립하며 동체부는 절요형이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만들었고 굽은 V자형이며 낮다. Ⅲ 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에서 출토되고 있는데, 절요형접시의 경우 강진유형을 제작한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 등의 요지에서도 생산되는 기종으로 기형만으로는 청자의 제작요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음성 생리와 용인 보정리 요지에서는 대부분 거친 모래를 섞은 내화토빛음을 받쳐 번조하고 있어 다소 차이를 보인다.<sup>18)</sup>

Ⅳ 유형 : 합천 영암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2점 출토되었다. 구연은 직립하며 동체부는 절요형을 이루고, 굽은 평저이다. 편평한 저부에서 기벽으로 올라가면서 외경하여 구연부로 이어지며, 기고가 낮은 것이 특징이다. Ⅳ유형의 접시는 仁宗 長陵에서 출토된 접시들과 기형이 동일하며 규석을 받친 예도 확인되는 점이 주목된다. 장릉의 하한은 1146년으로 동일한 기형들이 12세기 전반에 제작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사진 9

Ⅴ 유형 : 사천 본촌리폐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4점 출토되었다.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부는 절요형을 이룬다. 굽은 직립하고 낮은 굽과 속굽이 함께 확인된다. 직립한 구연은 구순부를 편평하게 만들어 둔중한 느낌을 주며, 동체부는 저부에서 사선형을 이루다가 외경하여 구연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만들었다. Ⅴ유형의 접시는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

18)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용인보정리청자요지』

서 동일한 기형을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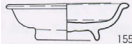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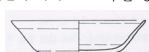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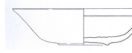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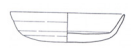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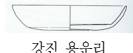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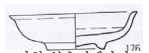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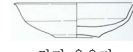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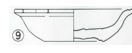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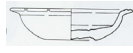




VI유형은 구연이 외반하고 기고가 낮은 접시로 제작기법과 문양에 따라 두 유형로 다시 나뉜다.

VI-1 유형 : 사천 본촌리폐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만덕사지에서 5점 출토되었다. 구연은 외반하며 동체부는 절요형으로 평저굽과 속굽이 함께 확인된다. 기고가 낮으며 일부는 압출양각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VI-1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문양의 세부형태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VI-2 유형 : VI-2 유형은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3점 출토되었다. VI-1 유형과 기형상으로는 동일하지만 기벽이 두꺼워지고, 굽은 모두 속굽의 형태를 띠고 있다. 특히 기형자체를 틀을 이용하여 압형성형하고 있으며 구연부는 약하게 화형으로 구획하고 있다. 대부분 모래를 받쳐 번조하고 있으며 강진 계율리 2호, 5호 등지에서 수습된 청자들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VII 유형 :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4점 출토되었다.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부는 사선형을 이루며 굽은 직립하고 낮다. 소위 사선형접시로, 구연에서 저부까지 사선으로 이어지며 내저면은 편평하게 만든 것이 특징이다. 외면과 내면에는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있다. 동일한 접시는 명종지릉(1255년하한)에서 출토된 사선형접시가 있으며, 사진 10 간지명 청자에서도 동일한 기형과 문양의 배치를 찾아볼 수 있어 사선형접시는 13세기 후반에서 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기형임으로 추정된다. 사진 11

VIII 유형 : 합천 영암사지, 울산 운흥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6점이 출토되었다. 구연은 직립하며 동체부는 절요형으로 굽은 직립하고 낮다. 팔각접시로 틀을 이용하여 압형성형하였으며, 내외면의 면을 구획하고 내저면은 편평하게 만들었다. 팔각접시의 성형은 시기가 늦을수록 면각이 둔중해지며 외면은 곡면을 이룬다. 팔각접시는 고려를 거쳐 조선초기까지 제작된 기형으로 출토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팔각접시는 한 구획면 내에 두 송이의 국화절지문을 새기고 있는데, 이러한 특징은 ‘丁亥’銘접시(1347)에서 나타나서 두 송이의 국화절지문이 14세기 중반 이후의 특징임을 알 수 있다. 사진 12 강진요지에서 가장 늦은 시기까지 조업을 하였던 강진 사당리 10호요지에서도 동일한 팔각접시가 출토되었다. 팔각접시의 경우는 조선초기까지 이어지는데 시기가 늦을수록 면각이 둔중해지고 내면에만 팔각접시의 여운이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지역 사지 출토	요지 생산품 및 편년유물
I	 사천 본촌리 폐사지	 강진 용운리 9호  강진 용운리 10호-1층
II	1  김해 덕산리 사지	 강진 용운리 9호  강진 용운리 10호-1층
	2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강진 사당리 14호  青磁丁亥銘 접시(1347)
III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사천 본촌리 폐사지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IV	 합천 영암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V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사천 본촌리폐사지 <sup>76)</sup>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VI	1  부산 만덕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2  부산 용당동유적  김해 덕산리 사지	 강진 게율리2호  강진 게율리 5호
VII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明宗智陵出土 青磁象嵌菊花文접시 (1255년하한)  青磁象嵌菊花文 '壬申'銘접시(13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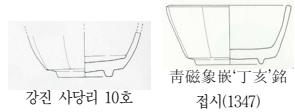
	경남지역 사지 출토	요지 생산품 및 편년유물
VIII	 <p>김해 덕산리 사지      울산 용운사지</p> <p>부산 용당동유적</p>	 <p>강진 사당리 10호      青磁象嵌'丁亥'銘 접시(1347)</p>

그림 4. 경남지역 사지 출토 접시

청자 기종 가운데 가장 다양한 양상을 보이는 접시는 8유형으로 분류되었다. 주목되는 점은 I 유형에서 VI-1형까지 강진 용운리 10호-1층과 10호-2층의 생산품과 유사점이 다수 지적되는 점이다. 기벽의 형태, 굽각음, 번조받침 등에서 동일한 특징이 관찰된다. 특히 용운리 10호-2층과는 문양까지 동일하여 강진요지에서 제작한 청자가 경남지역 사지에서 사용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II-2, VI-2유형과 VII, VIII유형은 명종지릉출토품과 간지명 청자에서 동일한 기형과 문양을 확인할 수 있어 고려후기에도 꾸준히 강진청자가 유입되었음을 증명해주고 있다.

### 3) 완

완은 크게 4유형으로 분류된다.

I 유형 :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1점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결실되었고 동체부는 사선형이며, 선해무리굽완이다. 내저면이 곡면을 이루며 번조상태는 좋지 않다. I 유형의 완은 강진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조업하였던 강진 용운리 9호와 63호 출토품에서 확인된다. 접시 I유형과 함께 가장 이른 시기에 제작된 양식이다.

II 유형 : 부산 만덕사지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2점이 있다.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부는 사선형을 이루며, I 유형에 비해 접지면의 폭이 넓어지고 내저면은 곡면을 이루는 중국식 해무리굽완이다. 접지면의 폭이 넓으면서도 내저면에 원각이 돌아가기도 하는데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변형해무리굽완도 II유형에 포함시켰다. II유형은 강진 용운리 9호, 63호, 10호-1층에서 동일한 형태가 확인된다.

III 유형 : III 유형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2점 출토되었다. 구연부는 결실되었지만 직립하였을 것으로 추정되며 기벽은 사선형을 이룬다. 접지면의 폭이 좁고 I, II유형에 비해 저경이 좁아 든 형태의 한국식해무리굽완이다. III 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1층, 강진 용운리 35호 출토품 등에서 동일한 완이 확인된다.

IV 유형 :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2점 출토되었다. 구연은 외반하며 동체부는 사선형을 이룬다. 굽은 직립하며 낮고, 형태는 해무리굽에서 윤형굽으로 변화하였으며 내저에 원각이 있다. IV 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용운리 10호-2층의 경우 동일한 기형의 완 내면에 운학문, 국화절지문등의 문양이 압출양각기법으로 시문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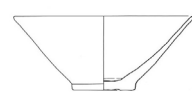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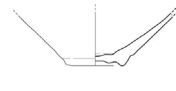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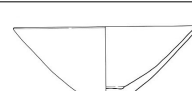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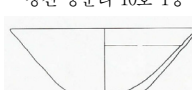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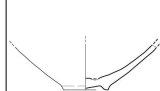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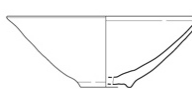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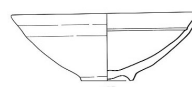

	경남지역 사지 출토	요지 생산품 및 편년유물
I	 <p>김해 덕산리사지</p>	 강진 용운리 9호  ⑩ 강진 용운리63호
II	 부산 만덕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강진 용운리 9호  강진 용운리 10호-1층  ⑪ 강진 용운리63호
III	 김해 덕산리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강진 용운리 10호-1층  ⑥ 강진 용운리35호
IV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용당동유적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그림 5. 경남지역 사지 출토 완

완의 경우 4유형으로 분류되는데, I 유형에서 IV유형의 순으로 선해무리굽 완→중국식해무리굽완→한국식해무리굽완→윤형굽완의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특히 I 유형의 선해무리굽완의 경우 경남지역 사지에서 확인되는 가장 이른 시기의 강진청자로서 강진요지에서도 가장 조업시기가 이른 용운리 9호, 63호 요지 출토품들과 기형, 굽의 형태가 유사하다. 또한 완의 경우 다른 기종에 비해 빨리 소멸하고 있는데, 고려 초기에 차도구로서 사용되었던 완은 음다풍습의 변화로 일반기명과 타 기종에 비해 수요가 감소됨에 따라 서서히 쇠퇴하는 기종의 하나이다.

#### 4) 잔

잔은 크게 4유형으로 분류된다.

I 유형 : 부산 용당동유적과 부산 덕산리사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구연은 외반하고, 동체부는 절요형을 이루며 굽은 외반하고 높다. 내저면은 편평하게 만들었다. I 유형의 잔은 강진 용운리 9호, 63호와 10호-1층에서 출토되고 있으며, 10호-2층에서부터는 출토되지 않아 비교적 이른 시기의 기형으로 판단된다.

II 유형 : 사천 본촌리폐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5점이 있다.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부는 절요형을 이룬다. 굽은 직립하고 낮은 굽과 U자형의 낮은 굽이 함께 확인된다. 통형잔으로 구연부에서 동체부까지 직선을 이루다가 동체아래에서 꺾여 저부로 이어지는 형태이며 외면은 무문이거나 양각 연판문을 새기거나 일부에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였다. II 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되는 통형잔에서도 양각기법의 연판문 장식과 상감기법의 사용이 확인되고 있어 동일한 시기에 제작되었음을 알 수 있다. 양각기법의 사용이나 상감청자의 시문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특징이다.

III유형 : 사천 본촌리폐사지에서 2점이 출토되었다. 구연은 직립하고 동체부는 사선형과 곡선형이 함께 확인되며 굽은 평저이다. 전체적으로 태토에 사립이 다량 섞여있고 번조상태가 불량한데 동일한 형태는 진해 태평동 요지 출토품에서 확인된다.

IV유형은 굽형태로 다시 2유형으로 나뉘어 진다.

IV-1유형 : 사천 본촌리폐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4점이 있다. 구연은 내만하고 동체부는 곡선형으로, 굽은 직립, V자형, U자형이 함께 확인된다. 팽이형잔으로 구연이 내만하고 구경에 비해 저경이 좁은 형태이며 기벽은 곡면을 이룬다. 굽은 낮으며 V자형굽이 일부에서 확인된다. 외면에는 문양이 시문되지 않거나 음각기법으로 수파문, 모란문 등을 시문하였으며 일부에


	경남지역 사지 출토	요지 생산품 및 편년유물	
I	 <p>부산 용당동 유적 김해 덕산리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1층 강진 용운리63호</p>	
II	 <p>사천 본촌리폐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p>	
III	 <p>사천 본촌리폐사지 사천 본촌리폐사지</p>	 <p>진해 태평동요지 진해 태평동요지</p>	
IV	1	 <p>김해 덕산리사지 사천 본촌리폐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합천 영암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p>
	2	 <p>부산 용당동 유적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 유적</p>	 <p>青磁象嵌雲鶴文 '壬申'銘盞(1332)</p>

그림 6. 경남지역 사지 출토 잔

는 상감기법으로 뇌문 등을 장식하기도 하였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동일한 기형과 문양장식의 잔들을 확인할 수 있다.

IV-2유형 : IV-2유형은 함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4점이 있다. 구연은 내만하고 동체부는 곡선형으로 굽은 U자형이며 낮다. IV-1형에 비해 구경이 넓어진 것이 특징이며 내·외면에는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뽀뽀하게 장식하였다. 중심문양으로는 시문된 우점학문은 동일한 예가 강진요지에서 생산된 靑磁象嵌雲鶴文‘壬申’銘잔(1332)이 있다. 사진 13 구경이 넓고 내만하는 형태로 내면에 우점학문이 뽀뽀이 새겨져 있어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운학문잔의 형태와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IV-2유형은 잔 가운데 가장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임을 알 수 있다.

잔의 경우 I 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1층의 출토품과 II, IV-1유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출토품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IV-2유형은 간지명 청자와 기형, 문양표현에서도 동일한 점을 찾을 수 있어 고려후기까지도 강진청자가 유입되었음을 보여 준다. 그리고 III유형의 경우 대접의 III유형과 동일한 조질의 청자로서 진해 태평동 요지 출토품에서 생산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는데, 동일시기에 강진청자와 함께 경남지역 요지 생산품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예이다.

#### 5) 잔탁

盞에 茶를 담아 托에 받쳐 사용한 茶禮用器로서 中國에서는 茶托이라 하며 명칭에서 알 수 있듯이 茶器로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다.<sup>19)</sup> 잔탁이 출토된 사지는 김해 덕산리사지와 산청 지곡사지 등이 있는데, 시기적으로 형태에 차이를 보인다. 잔탁은 형태와 문양 장식에 따라 3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I 유형은 김해 덕산리사지와 울산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3점이 있다.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고 김해 덕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잔탁들은 잔탁의 가운데가 뚫려 있는 형태이며, 울산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잔탁은 몸체와 전 사이에 깊은 홈이 파여져 있다. 동일한 형태는 강진 용운리 10호-1층과 삼흥리요지에서 확인된다. 용운리 10호-1층 출토 잔탁은 전이 넓고 깊은 홈이 새겨져 있어 울산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잔탁과 형태가 동일하다. 또한 강진 삼흥리에서 출토된 잔탁은 가운데가 뚫려 있는 형태로 곡면을 이루는 동체의 형태도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잔탁과 유사하다. 경남지역 사지출토품과 요지생산품 모두 문양이 시문되지 않은 것도 공통점이다.

<sup>19)</sup> 雄獅圖書公社, 1991, 『中國工藝美術辭典』-陶瓷-, 141쪽.

II 유형은 사천 본촌리폐사지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2점이 있다. II 유형에 음각, 양각의 문양이 새겨지는데, 잔탁의 형태가 화형으로 변화하면서 대부분의 잔탁이 잔받침대의 구연부를 양각과 음각을 이용하여 연판문으로 장식하게 된다. 동일한 형태는 강진 용운리 10호-1층 출토 잔탁에서 확인된다. 구연부에 연판문이 양각기법으로 시문되었다. 그러나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잔탁처럼 음각기법으로 문양을 장식한 예는 확인되지 않았다.

III 유형은 합천 영암사지, 산청 지곡사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3점이 있다. III 유형은 잔탁이 화형으로 만들어져 상감기법으로 문양이 시문되는 유형이다. 문양은 주로 국화절지문과 모란절지문이 시문되는데,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잔탁들은 모두 국화절지문이 상감되었다. 그리고 산청 지곡사지에서 출토된 잔탁은 한 구획 내에 국화 두 송이가 상감되었는데, 한 송이가 있는 것에 비해 시기가 늦은 것이다. 사진 14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잔탁은 화형으로 만들어졌으며 상감기법으로 국화절지문을 장식하였는데, 합천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잔탁과 기형과 문양이 동일하다.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뺄뺄이 장식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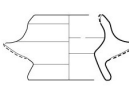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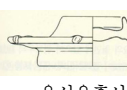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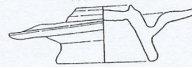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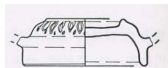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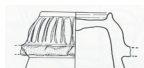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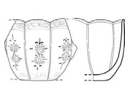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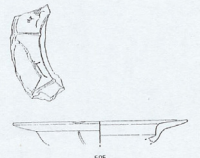
유형	경남지역 사지출토			요지 생사품
I	 김해 덕산리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울산운홍사지	 강진 용운리 10호-1층  강진 삼홍리
II	 사천 본촌리 폐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강진 용운리 10호-1층
III	 김해 덕산리 사지	 합천 영암사지	 산청 지곡사지	 강진 용운리 10호-2층

그림 7. 경남지역 사지 출토 탁잔

고 두 송이의 국화가 상감되는 후기 양식은 요지출토품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6) 뚜껑

잔, 합, 병 등의 뚜껑이 출토되고 있으며, 대부분 손잡이가 있는 형태로 다양한 문양이 시문되고 있다. 뚜껑은 형태에 따라 2유형으로 나뉜다.

I 유형은 합천 영암사지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2점이 있다. 기형은 동일하지만 음각기법으로 시문한 것과 상감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한 청자가 함께 출토되었다. 음각기법의 뚜껑은 손잡이가 파손되었으나 상면에 음각으로 새겨진 선형의 구획문이 있으며 축은 내경한다. 동일한 기형은 강진용운리 10호-2층과 강진 삼흥리요지 출토품에서 찾아볼 수 있다. 상면에 꼭지가 붙어있으며 축은 내경한다. 상면에 음각기법으로 곡선의 회전문을 시문하였다. 김해 덕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상감기법의 뚜껑은 꼭지는 결실되었으며 상면 가장자리는 너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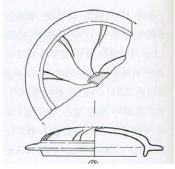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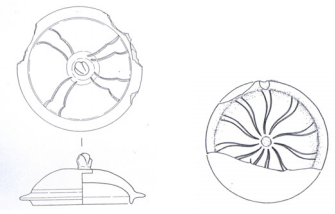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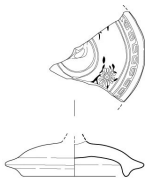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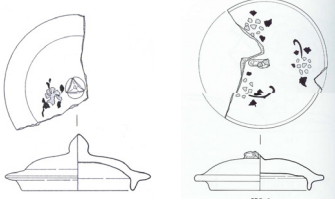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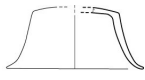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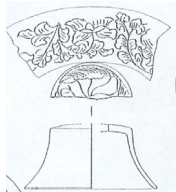
유형	경남지역 사지출토	요지 생산품
I	 <p>합천 영암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삼흥리요지</p>
	 <p>김해 덕산리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 ①      강진 용운리 10호-2층 ②</p>
II	 <p>김해 덕산리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2층</p>

그림 8.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뚜껑

을 상감하고 중심문양으로 국화절지문을 흑백상감하였다. 동일한 기형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2점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꼭지의 부착형태와 둔 중해진 전과 축의 형태가 사지에서 출토된 뚜껑과 동일하다. 문양은 상감기법으로 국화절지문을 장식하였다. 그러나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뚜껑은 국화절지문과 함께 뇌문을 문양대로 상감하고 있어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뚜껑에 비해서는 시기가 늦을 것으로 추정된다.

II 유형은 김해 덕산리에서 1점 출토되었다. II 유형은 매병의 뚜껑으로 출토예가 많지 않아 주목된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동일한 형태의 매병 뚜껑이 확인되고 있으나 용운리 요지의 것은 외면에 음각당초문이 가득 시문되었는데, 사진 15 덕산리사지의 뚜껑은 무문이다. 사진 16 특히 태토가 정선되고 유색은 회청색으로 발색이 좋으며, 내면에 규석을 세 군데 받친 흔적이 남아 있는 고급청자이다.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매병이 출토되고 있어 뚜껑과 세트로 사용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7) 마상배

마상배는 尖底形의 잔으로 상감기법이 사용되는 일정 시기에만 제작되었다. 경남지역 사지에서는 김해 덕산리 사지와 부산 용당동 유적에서 출토된 2점이 있다. 두 점 모두 일부 편이 잔존하고 있는데, 형태는 동일하며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마상배의 경우 저부의 두께가 매우 두꺼운 것이 특징이며, 두 점 모두 접지면은 편평하게 마무리하였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마상배는 저부일부가 잔존하지만 ①의 경우 김해 덕산리사지 출토 마상배와, ②의 경우 부산 용당동유적 출토 마상배와 저부의 형태가 동일하다. 그러나 문양의 형태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사지출토품들의 문양이 단순화된 경향을 보인다.

#### 8) 상형청자

상형청자<sup>20)</sup>는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1점이 출토되었는데 원숭이형상의 硯滴으로 추정되며 안면과 등의 일부만이 잔존한다. 일반적으로 청자로 나타나는 猿

20) '象形靑磁'은 어떤 구체적인 사물의 형상을 본 떠 제작한 청자이다. 일반적으로 '象形'과 '像形'은 같은 의미로 사용되지만 관용적으로 '象形'을 많이 사용한다. 최근 들어 象形靑磁라는 용어 대신 새로운 용어를 사용하기도 하지만 학계에서 보편적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포괄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상형청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백은경, 2004, 『高麗 象形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形靑磁는 대부분이 연적으로 제작되었고 印章으로 몇 점이 전해지고 있다. 현재까지 요지출토품 가운데에는 원숭이형의 상형청자 편은 확인되지 않았다. 덕산리에서 출토된 상형청자의 경우, 등에 표현된 손의 모습이 澗松美術館 소장인 靑磁母子猿形硯滴과 가장 유사한데, 원숭이의 吉相의 의미인 ‘輩輩封侯’의 표현 즉, 어미원숭이가 새끼원숭이를 등에 업고 있는 형상이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어미원숭이가 등에 새끼원숭이를 업고 있는 형태의 연적으로 추정할 수 있겠다.<sup>21)</sup>

### 9) 향로와 향완

사지 출토품 중에서 가장 주목되는 기종이 바로 향로와 향완이다. 앞에서 살펴본 잔탁의 경우도 차공양을 위한 기종이지만 불교의례를 위한 향로와 향완은 사찰과의 깊은 관계로 사지에서만 출토되고 있어 유적의 성격을 명확히 하고 있다. 경남지역 사지에서는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이러한 기종이 다수 확인되고 있다.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연화형의 향로는 양각기법으로 연잎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으며 음각기법으로 연판의 세부문양을 새겨 넣었다. 사진 17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된 靑磁陽刻蓮瓣文香爐와 사진 18 靑磁陽刻蓮瓣文龍形蓋香爐와는 사진 19 동일한 형태는 아니지만 양련의 연화와 양각표현에서 유사점이 발견된다. 그리고 세부형태는 강진 사당리 23호와 강진 삼흥리에서 출토된 연화형향로와 각을 준 저부가 유사함을 볼 수 있고,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연화형향로는 연판문의 세부 표현에서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향완의 경우 향공양에 쓰이는 등 불교와 관련된 유적에서 출토되는 기종으로<sup>22)</sup>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되었다. 사진 20 형태는 청동제의 고려시대 향완과 동일하지만 소형화되었다. 외반된 구연이 전을 이루고 전은 편평하며, 원통형 잔에 팔자형의 다리가 달려 있는데, 경남지역에서 출토된 향완들은 저부는 결실되었고 몸체와 전 부분이 잔존한다. 동일한 향완은 강진 용운리 10호-1층과 10호-2층에서 확인되는데, 기형상으로는 용운리 10호-2층 유물과

21) 백은경, 앞의 논문, 61~63쪽.

22) 향완은 일반적으로 불단용 향로를 칭하는 것으로 고려시대에는 금속기와 도토제로 다량이 제작되었다. 향 공양은 불교 예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으로 불교경전에서도 그 중요성을 다수 언급하고 있다. 향완의 형태는 12세기경에 정형화된 것으로 보이며 소비처에서 출토된 경우 소비처의 성격을 추정하는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구민정, 2003, 『고려시대 향완 연구』, 동아대학교석사학위논문, 7~9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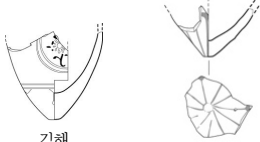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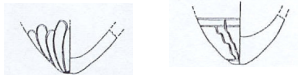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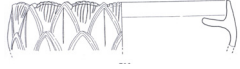



기종	경남지역 사지 출토	요지 생산품 및 전세품
마상배	 <p>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유적</p>	 <p>강진 용운리 10호-2층① 강진 용운리 10호-2층②</p>
상형청자	 <p>김해 덕산리 사지</p>	 <p>靑磁母子猿形硯 간송미술관</p>
향로	 <p>김해 덕산리 사지</p>	 <p>강진 사당리23호</p>  <p>강진 용운리 10호-2층</p>
향완	 <p>부산 용당동 유적 김해 덕산리 사지</p>  <p>김해 덕산리 사지</p>	 <p>강진 용운리 10호-1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p>

그림 9. 경남지역 사지 출토 마상배, 상형청자, 향로, 향완

더 유사하며 문양은 시문된 예가 없다.

지금까지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기종 가운데 대접, 접시, 완, 잔, 잔탁, 뚜껑, 마상배, 상형청자, 향로, 향완을 중심으로 제작요지와 편년유물, 전세품 등과 비교함으로써 공통점과 차이점을 유추해보았다. 대부분의 기형에서 강진요지 생산품과 유사한 예를 찾아볼 수 있었는데, 편년유물의 경우도 강진에서 생산된 간지명 청자 등과 유사함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청자가 강진 생산품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대접, 접시, 잔에서는 경남지역 요지에서 생산된 청자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 이들 기종은 태토에 사립이 많이 섞여 있고 발색이 좋지 않은 조질이다. 비교과정을 통해서 강진 용운리 10호-2층과의 유사점을 많이 찾을 수 있었으며, 고려 전 기간에 걸쳐 강진청자가 유입되고 있지만 10호-2층의 조업시기에 가장 다양한 청자들이 경남지역으로 유입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고려후기에도 간지명 청자의 영향이 확인되고 있어 청자의 쇠퇴기에도 여전히 강진청자가 경남지역 사지로 유입되었음을 알 수 있다.

## 2. 장식기법에 따른 문양<표1>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는 각 기종에 다양한 기법을 사용하여 문양을 장식하였는데, 기법에 따라 선호된 문양이 다소 차이를 보임을 알 수 있어 제작시기에 따른 차이를 추정할 수 있다.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에서 확인되는 장식기법은 음각, 양각, 압출양각, 상감, 퇴화, 철화 등이 있다. 음각기법으로는 수파문, 앵무문, 당초문, 연판문, 운학문, 죽문 등이 있고 양각기법으로는 연판문이 중심을 이룬다. 압출양각기법으로는 국화절지문, 연화문, 연판문, 포도문을 장식하였다. 특히 압출양각기법은 문양 외에도 청자의 기형자체를 도범을 이용하여 찍어내어 화형접시, 팔각접시 등을 제작하고 있는데 기법이 동일함으로 이러한 압형성형청자들도 압출양각의 범주에 포함시킬 수 있다. 상감기법으로는 국화절지문, 여지문, 유로수금문, 운학문, 봉황문, 화훼절지문, 연당초문, 뇌문 등이 장식되었으며, 소량이지만 퇴화점을 찍은 청자편과 철화기법을 사용하여 선을 긋거나 당초문을 그려 넣고 있다. 본 장에서는 각 장식기법별로 장식된 문양들을 요지생산물 및 편년유물과 비교하여 제작요지를 추정해보겠다

### 1) 음각기법

#### ① 수파문

수파문은 주로 대접, 완, 잔 등의 내면을 가득 채우는 형태로 시문되며, 음각기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고려말기에 접시나 매병 등에서 상감기법으로 새겨지기도 하지만 음각기법의 수파문과는 형태가 다르다. 합천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잔 두 점에는 내면에 세선의 음각문으로 수파문을 가득 시문하고, 외면에는 모란문을 음각으로 새겨 넣었다. 사진 21 두 점의 모란문의 형태가 조금 차이를 보이지만 수파문의 형태는 유사하며 구연이 내만하는 잔으로 기형도 유사하다. 합천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수파문잔과 동일한 양식의 청자가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품에서 확인되었다. 사진 22 양자는 구연이 내만하는 소형의 잔이라는 점과 내면에 세선의 수파문을 가득 메우고 외면에는 모란문을 새겨 넣은 것이 동일하다. 합천 영암사지의 잔과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품 모두 발색이 좋고 태도가 정선되었으며, 굽깎음새나 내면 구연아래에 음각선이 돌아가는 등 동일한 양식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합천 영암사지 출토 잔은 강진 용운리 제품임을 알 수 있다.

#### ② 앵무문

앵무문은 대접이나 완의 내면에 장식되며 대부분 2마리의 앵무가 서로 꼬리를 향하여 날아가고 있는 형태이다.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대접은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의 내면에 두 마리의 앵무가 깊은 음각으로 새겨져 있다. 동일한 양식이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확인되는데 내저원각이 있는 대접 내면에 앵무문이 새겨져 있다. 강진 용운리의 앵무문은 앵무의 머리카락의 표현이 곡선적인 것에 비해 김해 덕산리사지의 앵무문은 머리가 뾰족하고 깃이 직선화되어서 강진 용운리에 비해 단순해진 양식으로, 표현의 차이는 있으나 앵무문의 포치가 동일하여 강진 용운리 제품으로 보는 것에는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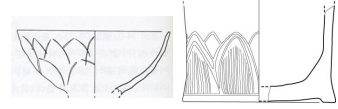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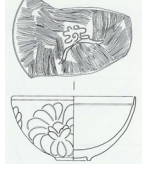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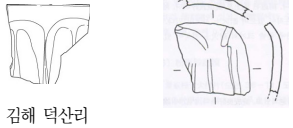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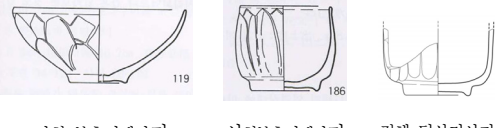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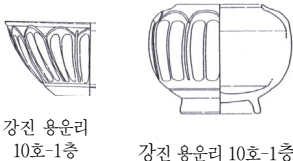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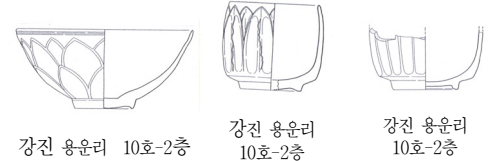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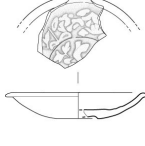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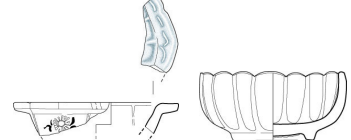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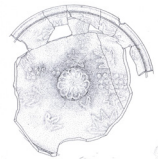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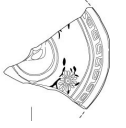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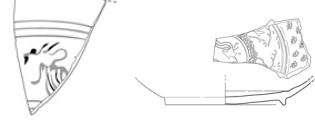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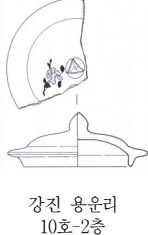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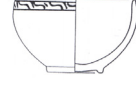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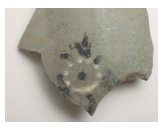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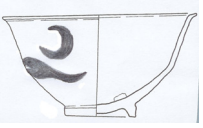
#### ③ 당초문

당초문은 주로 접시나 완의 내면에 장식되는데, 기벽이 얇고 유색이 맑은 청자가 대부분이며, 문양이 정교하게 시문되는 것이 특징이다. 당초문은 단독으로 시문되기 보다는 국화나, 모란 등과 결합하여 절지문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지만,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당초문은 파편일부에서 단독형태가 확인된다.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등에서 출토되며, 완과 접시의 내면에 시문되었다. 당초의 형태는 잎이 넓게 퍼졌고 단순화되었다. 이와 유사한 당초의 형태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두 점의 완 내면에서 확인되며, 이들 역시 당초의 형태는 단순화되었다.

#### ④ 연판문

연판문은 주문양보다는 보조문양으로 장식되는 경우가 많은데, 경남지역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에서도 연판문은 매병의 저부에 장식되거나 잔탁의 받침에 장식되었다. 특히 잔탁에 장식되는 연판문은 대부분이 양각기법으로 표현되는데 비해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탁잔의 연판문은 음각이며 연잎의 표현까지 세밀하게 음각하고 있다. 연판문은 음각이 양각보다는 이른 시기에 사용된 것으로 생각되며, 정교하게 시문하는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김해 덕산리사지와 합천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연판문 대접은 단순화된 연판문을 음각하고 있다. 부조연판

<표 1> 장식기법에 따른 문양의 종류와 요지생산품 및 편년유물과의 비교

장식기법		문양						
		수파문	앵무문	당초문	연판문	운학문	죽문	
음각	사지	 합천영암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김해 덕산리 부산 용당동 유적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small>青磁 陽印刻 雲鶴文碗, 國立中央博物館 所藏</small>	 강진 용운리 10호-2층	
양각	환조연판문			부조연판문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합천 영암사지	 사천 본촌리페사지 사천본촌리페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10호-1층 강진 용운리 10호-1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압출 양각	국화절지문	연판문	연화문	포도문	압형성형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김해 덕산리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사당리 14호 강진 용운리 10호-2층			
상감	국화절지문	여지문	유로수금문	운학문	봉황문	화훼절지문	연당초문	늑문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 유적	 부산 용당동 유적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 유적 부산 용당동 유적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 유적 김해 덕산리 사지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10호-2층	 明宗智陵출토품 (1255년하한)	 青磁象嵌柳蘆水禽文'癸酉'銘대접 (1333)	 青磁象嵌雲鶴文'壬申'銘盞(1332)	 青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 (1332)	 青磁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대접 (1329)	 青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접(1365~1374)	 강진 용운리 10호-2층
퇴화	화문							
	 김해 덕산리 사지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10호-2층			
철화	선문		당초-1		당초-2			
	사지	 김해 덕산리 사지	 부산 용당동 유적		 부산 용당동유적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용운리 10호-2층	 강진 사당리 요지		 진해 태평동요지				

문은 점차 압출양각기법과 상감기법이 주 시문방법으로 바뀌면서 단순화되어 음각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음각연판문이 부조연판문에 비해 늦은 시기에 제작된 것이다.<sup>23)</sup>

또한 음각연판문의 경우 쌍선으로 새겨지는 것이 특징이다.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매병 저부에는 연판문대를 음각하였는데, 중판의 연판문을 겹쳐 시문하였으며 연잎의 세부 표현까지 정교하게 표현하고 있다. 이들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의 음각연판문완의 쌍선연판문, 잔탁의 섬세한 연판문, 주자상하단의 연판문과 유사한 점이 있다.

#### ⑤ 운학문

음각기법의 운학문은 구름과 학이 각각 독립적으로 배치되고 구름의 형태가 여의형인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압출양각기법의 운학문은 기면을 가득 채우고 있으며 구름과 학이 어우러지고 운문이 당초형을 띠는 예도 나타난다. 합천 영암사지 출토의 음각운학문은 운학문이 완의 내면을 운학문이 가득 메우고 있으며 운문이 당초형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양각의 기법을 사용하면서 세부적인 문양을 음각기법으로 정교하게 시문하고 있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압출양각 운학문대접, 완들이 있으며 음각, 반양각의 운학문은 전세품가운데서 많이 찾아볼 수 있다. 합천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운학문은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소장하고 있는 靑磁陽印刻雲鶴文碗과 문양의 구성, 세부형태까지 거의 동일하여 같은 요지에서 생산하였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진23 문양의 특성상 청자의 유색이 좋고 태토가 정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⑥ 죽문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죽문잔이 1점 출토되었다. 죽문은 현재까지의 조사에서 강진과 부안요지에서 확인되고 있는 문양인데, 요지 출토품과는 다소 차이를 보이는 형태이다.<sup>24)</sup>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죽문은 반양각기법으로 대나무 줄기만을 표현하였으며 음각기법으로 마디를 새겨 넣었다. 그런데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죽문은 잔의 외면에 시문되어 있는데 대나무 가지가 뺀 어가고 뺀 가지에는 뾰족한 대잎을 세밀하게 음각하고 있다. 정형화된 강진의 죽문에 비교하면 사지에서 출토된 죽문은 보다 회화적인 표현으로 강진 용운리 10호-2층과 사당리요지 출토 상감기법의 죽문에서 유사한 점이 간취된다.

<sup>23)</sup> 장식기법의 양분화가 이루어지면서 良質청자의 시문기법은 상감과 압출양각이 조각양각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보이며, 粗質은 무문이나 음각으로 시문되어 조각양각의 사용이 점차 사라졌던 것으로 보인다. 박지영, 2005, 『고려 양각청자 연구』, 고려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1쪽.

<sup>24)</sup> 박지영, 2005, 앞의 논문, 26쪽.

## 2) 양각기법

### ① 환조연판문

환조연판문은 굵은 외곽선에 넓게 면을 깎아내어 꽃잎의 양감을 표현한 연화문이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환조연판문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완과 합천 영암사지에서 출토된 병에서 확인된다. 이와 동일한 형태는 강진 용운리 9호와 10호-1층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사지출토의 환조연판문은 구획선이 불분명하다. 환조연판문은 시기적으로 부조연판문에 비해 앞서는 양식이다.

### ② 부조연판문

부조연판문은 잎의 바깥부분을 깎아내어 연판문을 도드라지게 표현하였으며 太線 연판문이라고도 하며 환조연판문과 달리 중판으로 표현되는 것이 특징이다. 연판문은 단선과 쌍선으로 표현되는데 단선과 쌍선연판문은 공존하지만 단선이 먼저 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p>25)</sup> 또한 이러한 형태는 양각이 둔화되고 연판의 구획이 음각으로 단순화되기도 한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연판문은 김해 덕산리사지, 사천 본촌리폐사지에서 확인된다. 주로 대접과 잔에서 확인되는데,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품들과 유사성이 많이 보인다. 대접에서 확인되는 연판문은 쌍선으로 표현하였으며 잔에 표현된 연판문은 면취기법을 사용하여 연판문을 부각시켰다.

## 3) 압출양각기법

### ① 국화절지문

국화절지문은 완과 접시의 내면에 주로 장식된다. 압출양각 국화절지문은 매우 양질로 제작되었으며, 강진과 부안지역에서만 제작되었다. 압출양각 국화절지문은 중부지역의 요지에서는 출토된 예가 아직 없어 지역적으로 차별화되는 문양으로 여겨진다.<sup>26)</sup>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국화절지문 파편은 활짝 핀 국화와 함께 꼭선을 이루는 절지문이 표현되었다. 파편상으로는 고리형의 잎이 확인되지 않지만 잎형 당초와는 구분되며, 강진 용운리 요지 10호-2층에서 출토된 청자완의 국화절지문과 매우 흡사한 형태를 보인다. 이들 국화절지문의 청자들은 양질의 파편으로 제작요지를 추정할 수 있는 좋은 근거가 되고 있다.

<sup>25)</sup>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가’유형에서는 단선연판문이 시문되었으나 ‘나’, ‘다’유형에서는 단선연판문과 쌍선연판문이 새롭게 시문되었다. 이렇게 단선연판문과 쌍선연판문은 시문되기 시작한 시기의 차이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박지영, 2005, 앞의 논문, 52쪽.)

<sup>26)</sup> 박지영, 2005, 앞의 논문, 29~30쪽.

## ② 연화문

연화문은 소형접시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확인되는 두 점의 접시와 동일한 형태로 주목된다. 구연은 외반하며 화형으로 표현하였으며, 굽은 안굽으로 낮게 깎아냈다. 내면은 틀을 이용하여 구획하고 문양을 함께 찍어냈다. 구획된 각 면과 내저 중앙에 연화문이 각각 배치되었는데, 접시의 내면을 문양으로 가득 채운 것이 특징이다. 김해 덕산리사지와 사천 본촌리폐사에서 출토된 연화문은 강진 용운리에 비해서는 연화문의 형태가 단순화되어 당초문으로 보이기도 하지만, 기형상의 특징과 문양의 배치는 동일하다.

## ③ 연판문

연판문은 접시에서 압출양각 된 예를 찾아볼 수 있는데, 문양대로 기벽에 장식되었다.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압출양각 연판문 접시편은 복판의 연판을 겹친 연판문대를 기벽에 장식하였다. 강진 용운리요지 10호-2층에서 확인되는 접시에서도 내면의 기벽에 연판문대를 압출양각기법으로 장식하였는데, 내면 문양자체는 틀을 이용하여 찍어낸 것으로 용당동에서 출토된 접시의 경우도 내면에 연판문외에 또 다른 문양이 압출양각기법으로 시문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 ④ 포도문

포도문은 주로 대접의 내면에 장식되는데, 포도송이와 불가사리 모양으로 생긴 5엽의 잎이 어우러져 있는 것이 특징이다. 포도문은 국화절지문처럼 현재까지 강진과 부안에서만 출토되고 있는 문양이다.<sup>27)</sup> 경남지역 사지에서는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포도문대접편이 확인되었는데 불가사리형태의 잎과 포도송이들이 압출양각 되었다. 강진 용운리요지 10호-2층에서 출토된 포도문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지만, 강진의 것은 내저원각 내에 국화문이 새겨져 있으며 포도송이가 좀 더 세밀하게 표현되었다.

## ⑤ 기타

압출양각기법은 도범을 이용하여 찍어서 형태를 만드는 특징으로 문양장식 외에도 기형자체를 성형하는 방법으로도 사용되었는데, 화형접시와 팔각접시 등이 그 예가 된다. 상감기법이 유행하면서 압출양각기법은 장식기법으로서의 그 사용이 줄어들지만, 고려말기까지 이어지는 팔각접시와 국화형접시의 성형에서는 그 기법이 남아 사용되었다. 또한 압출양각기법을 이용한 성형은 접시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기고가 낮고 비교적 소형에 속하는 기종의 특성상 도범을 이용하기가 편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27) 박지영, 2005, 앞의 논문, 33쪽.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청자상감팔각접시 구연부편과 화형잔이 출토되었다. 접시 구연부편에는 국화절지문이 상감되었고 강진 용운리 10호-2층출토의 청자상감국화문접시와 친연성이 있다. 화형잔은 강진 사당리 14호 잔과 매우 유사하다.

#### 4) 상감기법

##### ① 국화절지문

국화절지문은 기종을 불문하고 상감기법 가운데 가장 많이 시문된 문양이다. 한 송이의 국화를 백상감하고 국화의 잎이나 가지를 흑상감하고 있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국화절지문의 형태이다. 문양의 포치는 국화절지문을 중심문양으로 당초문대, 연판문대, 여의두문대 등을 배치한다. 김해 덕산리사지, 합천 영암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등에서 출토되고 있다. 국화절지문이 장식된 기종은 잔, 뚜껑, 잔탁, 마상배, 접시, 주자 등으로 다양하며 한 송이의 국화꽃을 백상감하고 절지문을 흑상감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특히 김해 덕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뚜껑과 잔탁의 국화절지문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뚜껑과 잔탁에 장식된 것과 형태가 매우 유사하다. 국화절지문은 강진에서 상감문양이 처음 등장하는 용운리 10호-2층에서부터 장식되기 시작하였다. 국화절지문의 형태는 시기가 지나면서 도식화되고 단순화되는데 김해덕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잔과 잔탁, 주자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또한 도식화된 국화절지문은 靑磁象嵌菊花文‘己巳’銘 접시(13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화절지문은 점차 정형화되며 고려후기에는 단순화되면서 印花기법으로 진행된다. 김해 덕산리 사지에서 출토된 주자에는 국화문이 모두 인화기법으로 시문되었다. 인화기법의 국화문은 점차 단순화되어 조선초기 분청사기의 문양으로도 이어진다.

##### ② 여지문

여지문은 대접의 내면에 중심문양으로 상감되는데, 3~5개의 과실과 절지를 함께 표현하고 있다. 타원형의 과실은 점을 촘촘히 찍어 알알이 맺힌 열매의 형태를 표현하고 있다. 여지문이 상감된 가장 정형화된 형태는 명종지릉에서 출토된 靑磁象嵌荔枝文대접(1255년하한)으로 부안 유천리 요지에서 동일한 여지문과편이 출토되고 있어 주목된다.<sup>28)</sup>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 유적에서 출토된 여지문대접은 여지열매의 세부표현과 절지형태, 문양 포치가 명종지릉 출토품과 유사하다. 또한 고려후기에 제작된 간지명 청자에도 여지문이 중심문양

<sup>28)</sup> 김영원, 2006, 『고려의 부안 청자』, 『전북의 고려청자-다시찾은 비취색 꿈』, 국립전주박물관, 188쪽.

으로 상감되고 있다. 靑磁象嵌‘壬申’銘청자대접(1332)은 명종지릉출토품에 시문된 여지문에 비해서는 도식화된 형태지만 문양의 포치뿐 아니라 정교하게 장식하고 있다. 울산 운흥사지에서 출토된 여지문 대접의 여지문은 세부표현이 약화되어 있는데 ‘壬申’銘청자의 문양과 유사하다. 여지문이 상감된 대접은 대부분 유색이 선명하고, 규석을 받친 고급청자가 많아서 여지문은 특별히 고급청자에 선호된 문양으로 추정할 수 있다. 경남지역 사지에서는 김해 덕산리 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 울산 운흥사지에서 확인되고 있으며 규석을 받쳐 번조한 고급청자에 해당한다.

### ③ 유로수금문

유로수금문은 버드나무와 물에서 노니는 새가 어우러진 문양으로 매병 등의 중심문양으로 주로 상감된다. 그러나 고려후기의 유로수금문은 단순화되고 버드나무가 갈대로 변형되는데, 대접내면에 중심문양이 되기도 한다. 또한 유로수금문이 다시 변형되어 유문이 단독으로 시문되기도 하고, 수금과 화문이 결합하기도 하는 등 고려후기에는 다양한 문양의 변화가 일어나는 문양의 하나이다. 유로수금문은 버드나무를 중심으로 수금문과 결합된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확인되는 유로수금문은 매병과, 향로, 대접 등에서 확인되고 있다. 매병의 일부에서 버드나무와 새의 형태가 확인되는데 비교적 회화적으로 표현한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유로수금문은 靑磁象嵌柳蘆水禽文‘癸酉’銘(1333) 대접에 시문된 문양과 버드나무, 갈대, 단순한 새의 표현 등이 유사함을 찾아 볼 수 있다. 사진 24

### ④ 운학문

운학문은 상감문양 가운데 국화절지문 다음으로 가장 많이 선호된 문양이며 음각기법과 압출양각기법에서부터 사용한 문양이다. 그러나 상감기법의 운학문은 정형화된 형태이다. 운문의 경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지만 고려후기로 가면 서 문양이 단순해지고 기면을 채우는 역할을 하면서 점으로 변형되어 우점학문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운학문은 대부분 정형화되거나 우점학문이 많다.

부산용당동유적과 울산 운흥사지 출토대접 편에서 확인되는 운학문은 운문의 형태가 정형화되었으며 운문과 학의 몸통을 인화기법으로 시문하였다.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소호동체부편과 접시편에서는 우점문화된 운문의 형태와 인화기법으로 시문된 단순한 형태의 학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된 잔과 뚜껑 상면의 우점학문은 형태가 유사하며 ‘壬申’銘 高足杯의 雲鳳文과 사진 25 ‘甲戌’명 접시 편의 우점학문과 형태가 동일하다. 사진 26

松廣寺 慈靜國師妙光塔 出土 靑磁象嵌雲鶴文盒 (1301)의 운문은 나사형을 이루고 있으나 사진 27 靑磁象嵌雲鶴文‘壬申’銘잔 (1332)부터 운문이 雨點文化된다. 이러한 우점문은 ‘壬申’銘 高足杯의 雲鳳文과 ‘甲戌’명 접시 편(1334)에서도 보이고 있어 14세기초부터 운학문이 우점문화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운학문의 운문이 독립되어 단독으로 시문되는 예들도 있는데 주로 접시나 잔의 중심문양으로 등장한다. 이러한 운문은 형태가 단순화되고 인화기법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팔각접시나 잔 등에서 이러한 예들이 확인된다.

#### ⑤ 봉황문

봉황문은 신분을 상징하는 문양으로 아무나 사용할 수 없었으며 상감청자가 존재했던 기간 동안 항상 고급의 발, 완, 합 등에 시문되었고 고려불화에서 선호했던 문양이기도 하다. 봉황문의 꼬리는 흑, 백선을 교차하여 운학문의 형태와 구분되며 이는 元의 영향이다<sup>29)</sup>. 또한 봉황이 단독으로 나타나기도 하고 봉황과 운문이 결합되어 운봉문의 형태를 보이는 것도 다수이다. 靑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1332)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1347~1365) 가운데에도 운봉문이 확인되는데 형태가 단순하고 정형화되었다.<sup>30)</sup> 사진 28

경남지역 사지에서는 부산 용당동유적과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봉황문을 확인할 수 있는데, 봉황의 꼬리를 흑백선을 교차시켜 굴곡을 이루는 점이나 봉황의 형태가 단순화되고 몸통은 인화기법으로 찍어내는 점은 ‘壬申’명잔의 봉황문 형태가 유사하다.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접시의 경우 내저 중앙에 여의두문을 돌리고 그 가운데 백상감만을 이용하여 그린 봉황문으로 그 형태가 매우 특이하다.

#### ⑥ 화훼절지문

화훼절지문은 고려후기에 해당하는 대접과 접시의 내면에서 확인되는 문양으로 단순화된 꽃의 형태가 3~4개 모여서 문양의 한 군을 이룬다. 새나 鳥蟲들과 결합되기도 하는데 유사한 형태를 靑磁象嵌花卉鳥蟲文‘己巳’銘대접 (1329)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진 29 경남지역 사지에서는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己巳’銘대접의 화훼문과 동일한 패턴을 보여주며, 구연부 아래에 장식된 당초문대도 단순화되어 있어 고려후기의 쇠퇴된 문양형태를 보여주

29) 金允貞, 2006, 『高麗後期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美術史學研究』249, 한국미술사학회, 185~186쪽, 197.

30) 국립해양유물전시관, 2003, 『무안 도리포 해저유물』

고 있다.

#### ⑦ 연당초문

연당초문은 대접의 내면에 중심문양으로 시문되었다. 연당초문은 고려말기에 시문되는 상감문양 중 전국적으로 출토되는데, 경남지역에서 생산된 연당초문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만덕사지에서 파편이 발견되었다. 이들은 靑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접(1365~1374)의 연당초문형태를 따르고 있으며 잎이 뾰족하고 당초문이 우점문화된 것이 특징이다. 정릉명청자 편은 강진 사당리 117번지와 강진 용운리 14호요지에서 수습되며 강진이외지역에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그러나 연당초문은 전국의 요지들에서 제작되었고 경남지역에서도 기장 신리요지에서 연당초문파편이 확인되었다.<sup>31)</sup> 그러나 김해 덕산리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만덕사지에서 출토된 연당초문은 꽃잎의 표현과 당초의 표현이 ‘정릉’명청자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어 강진에서 제작되었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

#### ⑧ 뇌문

상감기법의 뇌문은 주로 잔, 합, 병 등의 구연부에 문양대로서 장식되었다. 뇌문은 기하학적 형태로서 ‘卍’자문이라고도 불린다. 뇌문은 상감기법이 출현하는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확인된다. 김해 덕산리사지, 울산 운흥사지에서 출토되고 있는 청자에서는 주로 잔과 합의 구연에 문양대로 장식되고 있다. 특히 김해 덕산리사지 출토 뇌문 잔은 형태와 문양이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 잔과 매우 유사하다.

#### 5) 퇴화기법

퇴화기법은 백토 등을 이용하여 표면위에 덧칠하여 문양을 만드는 것으로 대부분 점의 형태로 시문한다. 이러한 점으로 화문을 만드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퇴화문양이다. 퇴화기법으로 화문을 만드는 것은 강진 용운리 요지와 부안의 유천리, 진서리요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두 지역 간의 차이점이 보인다.<sup>32)</sup> 강진의 경우 백퇴화점으로 문양을 만들고 있는데 비해 부안지역에서는 가운데 동 또는 철안료를 이용한 점을 찍어 화문의 가운데 점이 붉은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동일한 양식이 熙宗 碩陵(1237년 하한)이나 坤陵출토품(1239년

<sup>31)</sup> 경남문화재연구원, 2007, 『기장군 장안읍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sup>32)</sup> 圓光大學校, 2001, 『扶安 鎮西里 靑磁窯址-第18號 窯址 發掘』.

圓光大學校博物館, 2001, 『扶安 柳川里 7地域 靑磁窯址群 發掘調査 報告書』.

하한)에서 보이고 있어 청자의 제작지를 추정하는 근거가 되고 있다. 사진 30 경남 지역 사지에서 퇴화문양이 출토된 곳은 김해 덕산리 사지로 백퇴화점으로 원을 둘러 화문을 만들고 가운데 꽃술과 주변의 잎을 자토로 그려 넣고 있어 용운리 10호-2층 출토 접시나 부안 유천리 7구역 출토 퇴화문 접시와는 차이가 있다. 아마도 강진의 또 다는 가마의 제품이 아닐까 생각된다.

#### 6) 철화기법

철화기법은 이전까지 해남 진산리요지가 가장 대표적인 제작요지로서 해남 일대의 요지에서만 제작된 것으로 보는 경향이 있었다.<sup>33)</sup> 그러나 실제적으로 강진 용운리, 사당리에서도 철화기법으로 문양을 시문하고 있고, 중부지역 요지에서도 철화기법을 사용하고 있어 다양한 요지에서 철화기법으로 청자의 문양을 시문했음을 알 수 있다. 해남 진산리요지에서 제작한 철화문양으로 가득 채운 장고와 합외에도 다양한 형태의 철화청자들이 제작된 것이다.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철화문양도 다양하지만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강진 용운리요지 10호-2층에서 확인되는 형태로 주로 접시의 내면기 벽에 선을 긋는 형태로 동일한 형태가 김해 덕산리사지에서 출토되었는데 기형도 동일한 점에 주목할 수 있다. 두 번째는 장고에서 확인되는 당초문의 형태이다. 부산 용당동 유적에서 출토된 장고편은 외면에 철화문으로 구획을 하고 굵은 선의 당초문을 그려 넣고 있으며 일부에는 퇴화점을 찍어 장식한 것도 찾아볼 수 있다. 파편이라서 정확한 양상은 알 수 없으나 잔존편으로 추정해볼 때 해남 진산리요지 출토품과도 관련성을 찾을 수 있으며, 강진 사당리요지에서도 동일한 양상을 찾아 볼 수 있다. 세번째는 단순화된 당초가 단독으로 시문되는 예인데, 부산 용당동 유적에서 대접과 완의 외면에서 관찰된다. 단순화된 당초형태로 이러한 철화문이 시문된 청자의 경우 태토에 사립이 다량 섞여있고 번조상태가 불량하여 조절의 청자로 분류할 수 있다. 동일한 예를 다른 지역에서 찾을 수 없었고 경남지역에서는 이미 일제시대에 조사되어 알려진 부산 덕포리 요지에서 철화청자를 생산하였다는 기록이 있으나 정확한 양상을 알 수 없었다. 그러나 창원 대학교박물관에서 발굴하였던 진해 태평동요지 출토품에서 동일한 철화청자를 확인할 수 있었다. 기형과 청자의 질이 동일하여 진해 태평동요지에서 철화청자를 생산하였음을 알 수 있다. 출토 예는 많지 않지만 경남지역에서 생산한 청자도 사지에서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를 문양의 장식기법에 따라 분류

<sup>33)</sup> 목포대학교박물관, 전라남도 해남군, 1992, 『해남 진산리 녹청자 요지』.

해보았다. 각 기법과 문양을 요지생산품과 비교하였을 때 강진 용운리요지와 가장 유사함을 찾을 수 있었다. 또한 문양의 장식기법은 시기적 변화도 함께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의 문양을 통해 시기적으로 변화되고 선호된 문양의 양상을 파악해 볼 수 있었다.

### 3. 번조법

청자의 번조법은 청자의 생산량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이며, 갑발의 사용과 제임방법, 내화제의 변화등은 청자의 질과 제작시기를 보여주는 특징이다. 또한 요지별로 번조방법에 있어서도 차이가 나타나기 때문에 청자의 제작요지를 추정할 수 있는 하나의 기준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번조법을 살펴보고자 한다.

#### 1) 백색내화토빛음받침

백색내화토빛음받침은 4~5개소의 백색 혹은 베이지색의 내화토를 얇게 바르거나 뭉쳐서 굽의 접지면이나 내저면에 받친다. 강진유형<sup>34)</sup>에서는 I 유형, II 유형에서 주로 사용되었다. 발굴조사된 강진 용운리요지의 경우 9호와 10호-1층은 II유형에 해당하는데, III유형에 해당하는 10호-2층에서도 백색내화토빛음받침이 일부 사용되었다. 주로 청자발생기부터 생산이 안정되는 시기까지 사용된 번조받침이다.

경남지역에서 출토된 청자 가운데 백색내화토빛음받침을 사용한 예들 역시 해무리굽완이나 문양이 시문되지 않았거나 음각, 양각, 압출양각기법이 사용된 것들이어서 이른 시기의 특징임을 파악할 수 있다. 대접의 경우 백색내화토빛음받침받침을 사용한 예는 III유형의 일부에서 확인되고, 접시는 I, II-1 유형이 해당되는데 백색내화토를 얇게 바른 것이 특징이다. 완은 I, II, III 유형이 해당되며, 잔은 I, II, III, IV-1형 일부에서 백색내화토빛음받침이 확인된다. 백색내화토빛음받침을 사용한 청자의 경우 앞에서 밝혔듯이 이른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강진청자에서는 용운리 9호와 10호-1층에서 사용된 번조받침으로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 가운데 강진청자들은 강진유형 I·II유형에 해당한다.

#### 2) 모래섞인 내화토빛음받침

모래섞인 내화토는 내화토에 굽은 사립을 섞어 빚은 것으로 강진 용운리

<sup>34)</sup> 강진청자유형은 해강도자미술관(1992, 『강진의 청자요지』, 28~29쪽.)에 의거하였다. 강진청자유형은 V-1장에서 자세히 다루겠다.

10호-2층 '나'유형에 해당한다. 주로 3~4개의 빗음을 받쳤으며 모래섞인 내화토를 사용한 경우 대부분 포개구이 한 것이 특징이다. 모래섞인 내화토빗음받침은 강진과 부안, 강진유형을 생산하였던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에서도 관찰되며 경남지역의 남해 이어리, 기장 무곡요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청자의 생산량이 늘어나는 강진 Ⅲ유형시기에 가장 활발히 사용한 번조받침으로,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청자가운데 강진청자 Ⅲ유형에 해당하는 청자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었다.<sup>35)</sup>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 가운데 모래섞인 내화토빗음받침을 사용하고 있는 청자들은 대접에서는 I, II, Ⅲ유형이, 접시는 III, IV, V, VI-1 유형이 해당된다. 완은 IV유형에서, 잔은 II, III, IV-1 유형이 해당된다. 이외에 뚜껑, 잔탁, 향로, 마상배에서 모래섞인 내화토빗음을 사용하였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나'유형에서 모래섞인 내화토빗음을 사용하고 있는데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들에서도 동일한 양식의 음각문양, 양각연판문, 압출양각문양, 상감기법 등과 기형이 확인되었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은 강진청자 Ⅲ유형에 해당한다. 모래섞인 내화토빗음의 경우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들 대부분이 포개어 굽고 있는데, 이러한 양상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과도 관련 있어 이 시기의 청자제작의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sup>36)</sup>

### 3) 규석받침

규석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다'형에서 사용된 번조받침으로 가장 고급의 청자에 사용되었으며 匣燻하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청자의 발색이 좋고, 태도가 정선되어 있으며 문양이 정교하게 새겨진 청자에 사용된 것이 사실이다. 특히 규석의 경우 강진과 부안요지에서만 사용된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급청자를 제작한 요지에서 사용된 번조받침으로 판단된다.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 가운데 규석을 사용한 예는 대접의 IV유형에서 각각 확인되며, 접시에서는 IV, VIII유형에서 확인되었다. 완에서는 규석의 사용 예가 없고, 잔의 II, IV-1유형, IV-2유형에서 확인된다. 또한 뚜껑과 마상배에서 규석을 사용하였다. 뚜껑과 마상배는 오목한 저면에 규석을 받치고 있어 규석 足座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추정된다. 규석받침의 경우 백색내화토나 모래섞인 내화토빗음받침처럼 일정한 유형에만 사용되기보다는 같은 유형내에서도 다른

<sup>35)</sup> 강진유형과 유형별 생산량에 대해서는 IV-1장에서 자세히 설명하겠다.

<sup>36)</sup> 장남원, 2006, 『번조받침과 청자의 상관관계-고려 중기 강진과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사회평론, 484~485쪽.

받침과 같이 확인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특징은 같은 유형 또는 같은 제작시기 내에서도 선택적으로 사용된 것으로, 규석을 받친 기종의 경우 청자의 유색, 태도, 문양 등이 정교하고 고급에 해당한다.

강진 용운리 요지에서 규석이 사용되는 것은 10호-2층의 '다'유형으로 강진 청자의 유형 IV유형에 해당한다. 그러나 강진 용운리 10호-2층 '다'유형은 '나'유형의 청자와 거의 동일한 양식을 보이고 있어 두 유형간은 시기적 차이보다는 동일시기의 질적 차이로 보고 있다. 그러나 강진청자 IV유형의 경우 10호-2층 '다'유형의 특징을 포함하면서도 기종의 변화를 포함하고 있어 IV유형의 제작시기는 10호-2층 '다'유형의 제작시기부터 좀 더 긴 시간동안 이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규석받침은 청자생산이 쇠퇴하는 고려 후기 고급청자인 간지명 청자의 '癸酉'銘(1333)청자까지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고려말기의 왕실용청자인 '正陵'명 청자(1356~1374)에서는 모래받침을 사용하고 있어 14세기 전반까지 고급청자에 규석을 사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sup>37)</sup>

#### 4) 모래받침

모래받침은 접지면에 모래가루를 받쳐 번조한 것으로 고려 후기에 사용된 번조받침이며 대형기종에 주로 사용되다가 고려말기에는 대부분의 기종에 사용되었다. 특히 강진요지에서 제작한 간지명 청자에서도 일부에 모래받침을 사용하고 있어 14세기 전반부터는 고급기종에서도 모래를 받쳐 번조하였음을 알 수 있다.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에서는 대접의 IV, V유형, 접시의 II-2, VI-2, VII, VIII유형, 잔의 IV-2유형 일부에서 확인된다. 접지면에 굵은 모래를 전체적으로 받쳤는데, 포개구이의 흔적은 확인되지 않지만 내저면에 가마잡물 등의 흔적이 확인되고 있어 갑번하지 않았던 것으로 판단된다.

## IV. 제작요지에 따른 특징과 편년

지금까지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들의 기종, 문양, 번조법 등을 살펴본 결과 강진에서 생산된 청자와의 유사점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규석을 받쳐

<sup>37)</sup> 해강도자미술관, 1991, 『高麗時代後期 干支銘 象嵌青磁』, 88~95쪽.

종류		변조반침				기종	특징
백색 내화 토 빛음 반침	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사천 본촌리페사지	 산청 지곡사지	대점 III 점시 I, II-1 완 I, II, III 관 I, II, III, IV-1 잔탁 I, II	匣燔 / 포개 구이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 용운리 9호	 강진 용운리 10호-2층	 배천 원산리	 해남 진산리		
모래쉬인 내화 토 빛음 반침	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김해 덕산리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울산 운흥사지	대점 I, II, III 점시 III, IV, V, VI-1 완 IV 관 II, III, IV-1 잔탁 III 뚜껑 I, II 항로 마상배	포개 구이 中心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용운리 10호-2층	 부안 유천리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		
규석 반침	사지	 함천 영암사지	 함천 영암사지	 사천 본촌리페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대점 IV 점시 IV, VI 관 II, IV-1, IV-2 마상배	匣燔 中心
	요지 및 편년 유물	 강진용운리 10호-2층	 부안 유천리 7구역	 明宗智陵출토 팔각점시 (1255년하한)	 青磁象嵌雲鶴文 '壬申'銘대점 (1332)		
모래 반침	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사천 본촌리페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대점 IV, V 점시 II-2, VI-2, VII, VIII 관 IV-2	포개 구이 中心
	요지 및 편년 유물	 青磁象嵌雲鶴文 '甲戌'銘점시 (1334)	 青磁象嵌雲鶴文 '丁亥'銘점시 (1347)	 강진 사당리40호	 青磁象嵌蓮唐草 文'正陵'銘대점 (1365~1374)		

그림 10. 변조법에 따른 분류와 요지생산물 및 편년유물과의 비교

구운 고급기종의 경우 강진과의 관계가 더욱 드러난다. 강진요 외에는 경남지역의 진해 태평동요지에서 제작된 청자들이 사천 본촌리폐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등에서 확인되었다. 이 장에서는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강진과 경남지역 요지에서 생산된 청자들의 조형 특징을 바탕으로 편년을 설정하고 특징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 1. 강진 요지 출토 청자의 편년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강진산 청자의 경우 강진 용운리 10호-2층 생산품이 대다수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강진청자의 경우 고려 전 기간에 걸친 출토양상을 보이고 있어 강진청자의 조성시기를 살펴보기 위해서는 해강도자미술관에서 제시한 강진청자의 유형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다.<sup>38)</sup>

발굴조사를 통해 층위를 확인할 수 있었던 강진 용운리 9, 10호의 경우 9호에서는 1기의 가마가 발견되었고, 10호에서는 4기의 가마가 발견되었다. 10호에서 발견된 4기의 가마는 좁은 지역 안에 위치하여, 유구와 퇴적이 서로 교차되어 있기 때문에 가마별 퇴적이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는다. 하지만 이들의 퇴적을 크게 두 개의 층으로 나뉘볼 수 있는데 이 두 개의 층은 서로 다른 번조 방법과 기형, 문양이 나타나 구분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서 보고서에서 10호의 퇴적을 두 개의 층으로 나누고, 각각의 퇴적층을 1층과 2층으로 명명하였다. 이중 1층이 밑의 층으로 생토 바로 위의 층이다.<sup>39)</sup> 9호의 퇴적은 관련 유구나 뚜렷한 층위의 확인 없이 수습되었으나, 유물 양상이 10호-1층의 유물 양상과 유사하여 거의 동일 시기로 보는데, 9호가 보다 이른 시기부터 운영되었던 것으로 본다.<sup>40)</sup> 따라서 용운리 9호와 10호 퇴적은 9호퇴적, 10호-1층, 10호-2층으로 크게 세 층으로 나눌 수 있다.

9호퇴적은 내저원각이 없고 굽의 폭이 넓은 해무리굽에서 한국식 해무리굽으로 이행하는 시기이며, 남아 있는 9호의 퇴적은 그 중에서도 한국식 해무리굽 완의 주된 생산시기였다고 볼 수 있다. 9호에서는 이전시기에 거의 확인된 바 없는 음각과 양각기법으로 시문한 자기들이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음각으로 연당 초문을 새기거나 양각기법을 사용한 화형접시나 환조연판문 등이 확인된다. 번조

<sup>38)</sup> 해강도자미술관, 1992, 앞의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1996, 앞의 보고서.; 국립중앙박물관, 1997, 앞의 보고서.

<sup>39)</sup>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보고서, 5~24쪽.

<sup>40)</sup>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보고서, 223쪽.

받침으로는 백색내화토빛음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9호퇴적과 10호-1층의 양상은 매우 유사하지만 문양이 시문되는 기종이 대 접과 완, 병은 물론 잔이나 호, 향완, 뚜껑과 같은 기종에까지 확대 적용되는 등의 변화를 보인다. 음각기법으로는 연당초문이 완이나 대접을 중심으로 시문되었으며, 양각기법으로는 환조연판문을 새기고, 부조연판문이 새겨지기도 하였다.

10호-2층은 가장 출토량이 많은 발과 접시를 중심으로 번조받침에 따라 가, 나, 다의 세 가지 유형으로 나누었다.<sup>41)</sup> ‘가’유형은 베이지색 내화토빛음받침, ‘나’유형은 모래섞인 내화토빛음받침, ‘다’유형은 규석받침이다. 이 세 가지 번조받침의 변화는 약간의 시기 차이가 있거나 일부 병행되기도 하였을 것으로 본다. ‘가’유형에서는 문양시문기법으로 압출양각기법이 출현하는 것이 주목되며 음각기법으로 연당초문, 수파문 등을 세밀하게 장식하고 양각기법으로는 부조연판문이 본격적으로 제작되고 있다. 압출양각기법으로는 국당초문, 모란당초문, 연화절지문 등을 표현하였다. 그리고 일부에 堆花기법을 사용하고 있는데 백토로 점을 찍는 정도이다. ‘나’유형과 ‘다’유형은 번조받침이 달리 나타나고 있지만 양식상으로는 동일하다. 압출양각청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됨으로써 국당초문, 운학문, 포도문, 용문 등 다양한 문양들이 시문되고 있으며 일부에 퇴화기법과 철화기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 층에서 상감기법이 출현한다는 점이 주목된다. ‘나’유형과 ‘다’유형은 양식상 동일한 양상을 보이지만 번조받침이 모래섞인 내화토빛음받침과 규석받침으로 차이를 보이는데 이것은 시기적 차이보다는 동 시기의 질적인 차이로 판단된다.<sup>42)</sup>

해강도자미술관은 강진일대 요지에 대한 지표조사를 통해 188개소의 청자요지를 확인하였고, 이들 요지에서 출토된 청자를 각 기종의 발생, 변천, 소멸하는 과정과 유태와 번조법, 굽받침으로 사용된 내화재료, 그리고 요도구인 갑발과 도침의 현상 등을 바탕으로 강진청자의 유형을 여섯 개로 분류하였다.<sup>43)</sup> 각 유형을 생산한 가마를 살펴보면 I유형을 생산한 가마는 용운리와 계율리, 삼흥리에 6개소, II유형은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삼흥리에 55개소, III유형은 용운리, 계

41) 국립중앙박물관, 앞의 보고서, 25쪽.

42) 보고서에서는 ‘나’유형의 시기를 지나 비색청자가 본격적으로 생산되기 시작하는 시기가 ‘다’유형이라고 보았다.(국립중앙박물관, 앞의보고서, 227쪽) 장남원은 ‘나’와 ‘다’유형은 시기의 차이가 아니라 질의 차이로 보고 ‘나’유형과 ‘다’유형을 동일한 시기로 보았다. (장남원, 앞의 논문, 7쪽) 사실상 ‘나’유형과 ‘다’유형은 문양이나 기형 등에서 차이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그러므로 ‘나’유형과 ‘다’유형은 약간의 시기 차이도 있지만, 사실상 거의 공존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박지영, 앞의논문, 51쪽)

43) 해강도자미술관, 1992, 앞의 보고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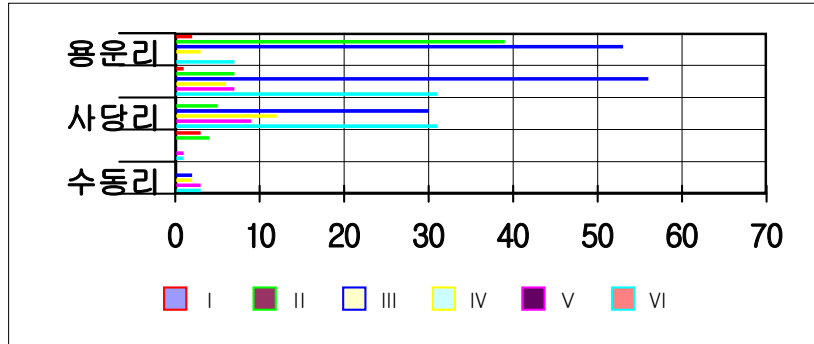


그림 11. 강진 각 요지별 청자유형의 생산요지현황

울리, 사당리, 수동리에 141개소, IV유형은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수동리에 23개소, V유형은 계율리, 사당리, 삼흥리, 수동리에 20개소, VI유형은 용운리, 계율리, 사당리, 삼흥리, 수동리에 80개소가 분포하고 있다. 전체유형에서 가장 생산량이 늘어나는 것은 III유형으로서 용운리와 계율리, 사당리의 140여개의 가마에서 확인되고 있는데, 이 시기에 청자의 생산이 급격이 늘어났음을 추정할 수 있다.

강진지역에서 출토되는 청자 중 가장 많이 생산된 III유형의 청자는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발굴조사가 이루어진 강진 용운리 10-2층 출토품도 같은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이 유형의 청자는 실제적으로 전국적으로 조사되고 있는 소비지 유적에서도 쉽게 찾아 볼 수 있으며 강진 이외 지역에서 운영된 청자요지의 생산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준 것을 살펴 볼 수 있다. 부안에서도 III유형의 청자들이 제작되었으며 중부지역의 음성 생리, 용인 보정리 등의 요지, 또한 경남지역에서는 남해 이어리요지에서 강진에서 제작된 III유형과 유사한 청자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양상은 생산력의 향상으로 인한 청자의 보급으로 전국적으로 청자의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 청자의 수요를 위해 강진 이외의 지역의 요지에서도 청자를 제작하게 되면서 가장 모본이 되는 강진의 양식을 모방하여 제작하였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강진 용운리요지를 발굴조사 한 국립중앙박물관에서는 각 층위의 조업시기를 9호는 9세기후반에서 10세기전반으로, 10호-1층은 10세기전반에서 중엽으로, 10호-2층은 10세기후반에서 11세기로 편년하였다.<sup>44)</sup> 이러한 편년기준은 龜井明德의 해무리굽 편년을 따른 것이다.<sup>45)</sup> 그러나 최근의 연구들은 국립중앙박물관

44) 국립중앙박물관, 1997, 앞의 보고서, 223쪽.

45) 龜井明德, 『唐代玉壁高台の出現と消滅時期の研究』, 『貿易陶磁研究』13, 1993, 86~126쪽.

관에서 제시한 편년에 대해 재고가 필요하며, 여러 근거를 바탕으로 새로운 편년을 제시하고 있다. 각 연구자들의 편년안을 정리한 것이 <표 2>이다.

먼저, 張南原은 10호-2층은 대개 11세기 말경부터 13세기 전, 중반에 이르는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즉 국내에서 宋과의 관계가 정상화되고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는 시기(한국식해무리굽완의 소멸기)가 한국 내 압출양각 기법의 개시 시점과 맞물리는 것으로 보았다. 이 기법은 국내에 도입되면서 초기에는 문양과 기형 등에서 중국 요주요계의 양식을 따랐으나 점차 독자적인 문양을 개발하여 고려의 고유한 양식을 이끌어 갔던 것으로 파악된다.<sup>46)</sup>

田勝昌은 조각장식 향로의 제작시기를 검토하면서 고려중기에 제작된 고려청자의 조각장식 향로가 耀州窯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적하였다. 요주요에서 출토된 오리조각 장식은 宋代 11세기 말에 제작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일한 양식의 향로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용운리 10호-2층에서 조각장식 향로를 제작하는 것은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로 추정

표 2. 강진 용운리 9·10호 요지 편년안

층위	國立中央博物館	張南原	田勝昌	李鍾玟	片山 まひ	朴芝英	姜敬淑
9호	9세기 후반 ~ 10세기 전반			10세기 말 ~ 11세기 초반			
10호-1층	10세기 전반 ~ 중엽	11세기 후반		11세기 전반 ~ 11세기 중반	11세기 후반		
10호-2층 가형	10세기 후반 ~ 11세기	11세기 말 ~ 12세기 전반	11세기 중반 ~ 12세기		11세기 말 ~ 12세기 전반	11세기 후반 ~ 12세기 전반	11세기 후반 ~ 12세기
10호-2층 나·다형		12세기 중반 ~ 13세기 중반				12세기 중반	

46) 장남원, 2004, 「고려 중기 압출양각 청자의 성격」 『미술사학연구』242·243, 116쪽.

하였다.<sup>47)</sup>

李鍾珉은 초벌의 시작시기에 있어 전축요 가운데 용인서리의 3기층 초반의 유물들이 전축요에서 토축요로 가미축조방식이 바뀐 직후로서 전형적인 전축요의 하한이 약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으로 비정되는 점을 고려하여 강진 용운리 9호의 조업시기를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경으로 보았다. 또한 용운리 10호-1층은 본격적인 토축요의 조업시기로서 11세기 중반으로 추정하였다.<sup>48)</sup>

片山 まび는 日本의 北九州지역에 위치한 對馬島, 大帝府, 博多 등의 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를 강진 용운리요지 출토품과 비교하였다. 강진 용운리의 층위에 따라 3유형으로 분류하였으며, 유적의 연대와 참고유물의 시기를 검토하여 강진 용운리요지의 편년을 제시하였다.<sup>49)</sup> 즉, 용운리 10호-1층은 11세기 후반, 10호-2층 '가'류는 11세기 말~12세기 전반, '나'류는 12세기 초반~후반에 해당한다.<sup>50)</sup>

朴芝莢은 강진 용운리요지와 강진 삼흥리요지의 출토품과의 비교를 통해 시기를 추정하였다. 청자의 문양 장식기법과 종류, 번조받침의 차이에 따라 삼흥리 출토품을 3유형으로 나누었을 때 삼흥리 1유형은 용운리10호-2층 '가'형과, 2유형은 용운리 10호-2층 '나'형과, 3유형은 용운리 10호-2층 '다'유형과 동일함을 지적하였다. 삼흥리 1유형과 용운리 10호-2층 '가'형에서 확인되고 있는 압출양각기법의 국당초문은 요주요의 영향아래 제작된 것이며 요주요에서 국당초문이 제작되는 것은 北宋晩期(1086~1127)경으로 11세기 후반에서 12세기 전반경으로 보았다.<sup>51)</sup> 또한 삼흥리 2, 3형과 용운리 10호-2층 '나', '다'유형은 문양장식 기법이나 특징 등이 동일하지만 모래섞인 내화토빛음과 규석의 번조받침의 차이로 구분한 것으로 제작시기는 동일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특히 삼흥리에서 '尙'자명이 음각된 盒身이 출토되었는데 이는 '尙藥局'을 뜻하는 것으로 중국 定窯에서 제작된 '尙藥局'명의 龍文과의 비교를 통해 '尙'자명 청자의 제작시기를 12세기 전반으로 보았다.<sup>52)</sup> 또한 삼흥리에서 출토된 청자와에 새겨진 '근'자명은

47) 전승창, 2002, 『靑磁 彫刻裝飾 香爐 考察』, 『고려청자와 종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82~87쪽.

48) 이종민, 2002, 『韓國의 初期靑磁 研究』, 홍익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88~197쪽.

49) 3유형의 경우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나'류와 상통하지만 일본에서 이 연대를 제시해 줄 유구 등이 없어 제시하지 않았다.

50) 片山 まび, 2003, 『北九州지역에서 출토된 고려청자에 대하여-초기자료에 관한 편년문제를 중심으로-』, 『대의교섭으로 본 고려청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43~65쪽.

51) 강진 용운리 10호-2층 나,다 유형에서 확인되는 일형 국당초문의 경우 중국 定窯의 형태와 유사한데, 정요에서 사용한 일형 국당초문의 도범에 1184년의 紀年이 있어 시기가 구분된다. (박지영, 2005, 앞의 논문, 109~110쪽.)

52) 고려 상약국명 합피 뚜껑에 시문된 용문은 중국 정요의 용문과 매우 유사하며 정요에서 상약

용운리 10호-2층 ‘나’, ‘다’유형에서 나타나는 문양이다. 또한 고려사의 기록을 통해 靑磁瓦가 제작되는 시기는 1157년으로<sup>53)</sup> 용운리 10호-2층‘나’,‘다’ 유형의 제작시기를 12세기 전중반을 중심으로 운영되었음을 제시하였다.

姜敬淑은 용운리 10호가마의 퇴적 2층위에서 비색에 가까운 유약 아래 흑백의 국화절지문을 상감한 도편이 수습되어 주목되는바, 이들은 12세기 상감청자에는 못 미치나 상당히 진전된 모습을 보여 11세기 후반~12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하였다.<sup>54)</sup>

이러한 연구를 종합해보면 강진 용운리 요지의 9호와 10호의 조업연대는 9호의 경우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초반, 10호-1층은 11세기 전반에서 11세기 중후반, 10호-2층은 11세기 중후반에서 12세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국립중앙박물관에서 제시한 연대와 100년의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최근의 이러한 연구와 다른 지역의 요지출토품들과 유적에서 출토되고 있는 자료를 통해볼 때 강진 용운리의 조업연대에 대한 재해석은 설득력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필자는 강진청자의 유형별 제작시기를 9호의 경우 10세기 말에서 11세기초반, 10호-1층은 11세기 전반에서 11세기중후반, 10호-2층은 11세기 중후반에서 12세기로 보았다. 강진청자의 유형에서는 용운리 9호와 10호-1층은 II유형에 해당하므로 II유형의 제작시기는 10세기 말에서 11세기 중후반으로, 10호-2층은 III유형에 해당하며 III유형은 11세기 중후반에서 12세기로 볼 수 있다. IV유형은 용운리 10-2층에서 III유형과 공반하고 있어 두 유형을 질적인 차이로 판단하고 있는데,<sup>55)</sup> IV유형은 III유형과 양식을 공유하면서 조금 더 늦은 시기까지 조업을 하였던 것으로 판단되어 IV유형은 11세기 중후반에서 13세기 전반까지로 설정할 수 있다. V유형의 경우 간지명 청자가 출토되고 있는데 간지명 청자의 제작시기에 관해서도 많은 설이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14세기 전반설을 따르며,<sup>56)</sup> 따라서 V유형의 제작시기는 13세기 중반에서 14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VI

---

국명의 청자의 제작시기를 12세기 전반경으로 보는 것에서 고려의 상약국명 제작시기를 12세기 전반 이후로 보았다.

<sup>53)</sup> 사당리나 삼흥리 등의 강진에서 제작된 청자기와가 개경의 고려 궁터로 공급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청자기와가 1157년경, 12세기 중반에는 원활히 생산되어 공급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高麗史』 卷 18, 世家 18, 毅宗 11年(1157) 4月 “...亭南鑿池作觀瀾亭. 其北構養怡亭盖以靑瓷. 南構養和亭盖以椶...”

<sup>54)</sup> 강경숙, 2005, 『한국도자기가마터 연구』, 시공아트, 223쪽.

<sup>55)</sup> 장남원, 2006, 앞의 책, 206쪽.

<sup>56)</sup> 尹龍二, 1993, 『韓國陶磁史研究』, 文藝出版社, 137~142쪽. ; 韓盛旭 2001, 『高麗 後期 靑磁의 性格-기형과 대토 분석을 중심으로-』, 『미술사학연구』232호, 한국미술사학회, 57~96쪽. ; 박경자, 2003, 『14세기 강진 자기소의 해체와 요업 체제의 이원화』, 『미술사학연구』238·239,

표 3. 강진청자에 대한 필자의 편년안

강진청자유형	제작시기
I	10세기 중반~10세기 말
II	10세기 말~11세기 중후반
III	11세기 중후반~12세기
IV	11세기 중후반~13세기 전반
V	13세기 중반~14세기 전반
VI	14세기 중반~14세기 말

유형은 14세기 중반에서 14세기 말로 설정하였다.

## 2. 경남지역 요지 출토 청자의 편년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대접, 접시, 잔 가운데 진해 태평동에서 제작된 청자들과 유사한 것들이 확인된다. 이들 청자들은 태도에 세사립이 다량 섞여 있고 발색이 좋지 않으며 외면에 회전흔이 강하게 남아 있는 것이 특징이다.

사천 본촌리폐사지와 부산 용당동유적에서 출토된 대접은 구연이 외반하거나 직립하고 굽은 높게 깎았으며 외면에 회전흔이 강하게 남아있는 것이 특징이다. 뿐만 아니라 대접 외면에 철화로 넓게 펼쳐진 당초문을 그려 넣은 부산 용당동유적 출토 대접은 진해 태평동요지의 유물과 동일한 형태여서 청자의 제작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 접시는 구연이 외반하거나 직립하고 굽은 낮게 깎거나 깎지 않은 형태로 동일한 기형과 번조상태를 보여주고 있다. 잔은 구연이 내만하고 굽을 깎지 않은 것이 특징으로 사천 본촌리폐사지에서 출토된 잔이 진해 태평동요지의 생산품과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진해시 태평동 요지는 1999년 도로예정지에 포함되어 긴급히 발굴된 곳이다. 발굴결과 아궁이와 굴뚝은 이미 훼손되었고 바닥만 남아 있었다. 현재 잔존 길이 4.1m, 너비 1m 정도이고 20도의 경사를 가진 등요이다. 도지미, 갑발 등은 출토되지 않았고 주변 폐기장에서 조질 대접, 접시, 완류의 녹청자계통이 수습되었다. 해남 진산리 17호 가마, 인천 경서동 가마 등의 도편과 비교해보면 이 가마의 활동 중심 시기는 대체로 11세기 후반으로 추정되나<sup>57)</sup> 보고자는 12세기로 보

김윤정, 2003, 앞의 논문, 197쪽.

간지명의 연대는 다음과 같다.

「己巳」	1329년	「庚午」	1330년	「壬申」	1332년	「癸酉」	1333년
「甲戌」	1334년	「壬午」	1342년	「丁亥」	1347년	「乙未」	1355년

고 있다.<sup>587</sup> 진해 태평동에서 확인되는 철화기법은 철화기법이 융성했던 해남 진산리요지와 철화기법이 처음 나타나는 강진 용운리 10호-2층간의 시기차는 크지 않으며, 부안, 음성 등지의 요지에서 확인되는 철화기법의 양상을 통해서도 철화기법의 사용시기는 11세기 말에서 12세기로 볼 수 있다.<sup>589</sup> 또한 태평동요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모래섞인 내화토빛음반침을 통해 보아도 진해 태평동요지의 조업 연대는 11세기말에서 12세기로 편년할 수 있다.

경남지역에서 조사된 가마 중 실질적으로 발굴조사를 통해 성격이 규명된 것은 진해 태평동이 유일하다. 발굴조사를 통해 파악된 진해 태평동요지는 대접, 접시, 완이 가장 중심을 이루며 병, 항아리가 함께 제작되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일반기명인 대접, 접시, 완, 잔의 경우 소비지에서도 가장 많이 출토되고 있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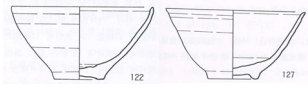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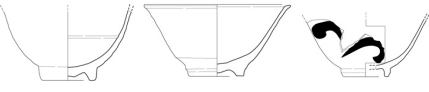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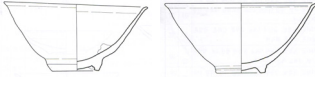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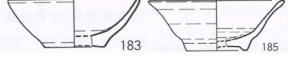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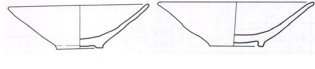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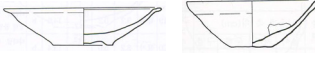


	경남지역 사지출토	진해 태평동 요지 생산품
대 접	 <p>사천 본촌리폐사지 사천 본촌리폐사지</p>  <p>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용당동유적 부산 용당동유적</p>	 
접 시	 <p>사천 본촌리폐사지 사천 본촌리폐사지</p>  <p>부산 용당동유적</p>	 
잔	 <p>사천 본촌리폐사지</p>	

그림 12. 경남지역 사지출토 대접·접시·잔과 진해 태평동요지 생산품의 비교

57) 강경숙, 2005, 앞의 책, 266쪽.

58)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1992, 앞의 보고서.

59) 장남원, 2006, 앞의 책, 182~193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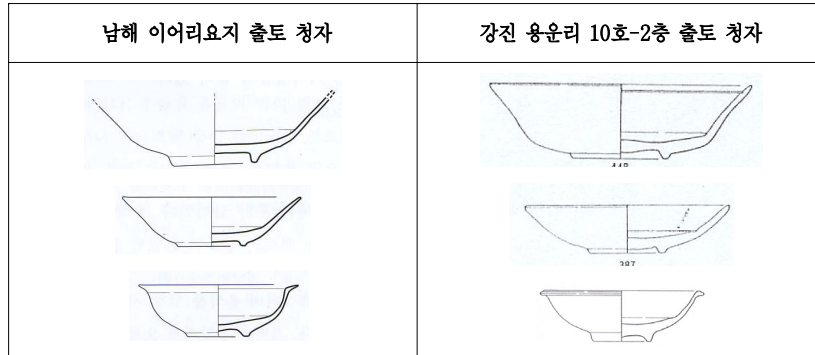


그림 13. 남해 이어리 요지 출토청자와 강진 요지 생산품의 비교

지역을 막론하고 생산과 소비의 가장 중심 기명이었음을 알 수 있다. 강진처럼 고급의 청자를 생산한 가마의 경우에도 대접과 접시, 완, 잔의 출토율이 상당히 높지만, 지역에서도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지역의 가마에서도 이러한 기종들을 중심으로 생산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경남지역에서 지표조사 된 남해 이어리요지의 경우 강진요지의 Ⅲ유형의 청자를 제작하고 있어 주목된다.<sup>60)</sup> 구연이 외반하고, 절요접시 등이 확인되는데 같은 요지에서 수습된 청자 중에서도 Ⅲ유형에 해당하는 청자는 태도가 정선되고 발색이 좋으며, 매우 정교하게 제작하고 있어 강진청자를 모본으로 하여 지역의 수요를 위한 양질의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형상으로도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된 접시들과 비교했을 때 매우 유사함을 찾아볼 수 있다. 절요접시의 형태와 사선형접시, 구연외반접시의 형태와 굽 깎음까지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남해 이어리요지에서 생산된 양질의 청자들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서 사용되는 번조받침인 모래섞인내화토를 받쳐 굽고 있어 요지의 조업시기가 강진 용운리 10호-2층에 해당하는 강진 Ⅲ유형과 동일함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최근의 고고학적 조사를 통해 청자 생산의 가장 중심이 되는 강진이외에 전국적으로 청자의 생산이 이루어졌던 가마가 밝혀지고 있는데, 경남지역에서도 다수의 가마가 운영되었음이 확인되고 있다. 경남지역의 생산지는 지역의 수요층을 위한 청자를 생산한 것으로 파악되며 강진과 비교하였을 때 조질에 해당되는 것들이다.<sup>61)</sup> 그러나 생산지의 위치는 경남지역의 경우 강진을 중심으로 한 서남

<sup>60)</sup> 장남원은 남해이어리요지를 강진용운리 10호-II층 양식의 청자와 유사한 강진유형의 범주에 포함시켰다.(장남원, 2006, 앞의 책.)

해안지역과 유사하게 바다와 인접하거나 강과 가까운 곳에 위치하고 있어 생산 요건에 있어 운송이 매우 중요한 요건이 되었음을 추정할 수 있다.<sup>62)</sup>

### 3.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의 단계별 특징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 가운데 가장 주목되는 것이 강진산 청자의 사용이다. 전국적인 유적조사를 통해 강진산 청자가 개경 외의 지역의 분묘, 건물지, 사지 등에서 출토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경남지역의 사지 역시 이와 동일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강진산 청자는 고려 초기부터 청자가 쇠퇴하는 고려 말기까지 출토되는 것으로 보아 경남지역에서 강진산 청자가 꾸준히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각 기종별 변천, 문양, 번조법의 분석을 통해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편년은 4단계로 정리할 수 있다.

1단계는 10세기 중반에서 11세기 중반에 해당하며, 접시 I, II-1유형과 완 I, II, III유형 그리고 잔 I유형, 잔탁 I, II유형이 사용되었다. 문양은 양각 기법의 연관문이 장식되었으며 대부분 소문인 것이 특징이다. 번조받침은 백색내화도빛음받침을 사용하고 있으며 백색내화도를 얇게 발라 번조하였고, 갑번한 예들이 많이 확인된다. 강진청자의 I·II유형이 해당되며, 강진 용운리 9호, 10호-1층의 특징과 유사한 청자들이 다수 출토되었다.

2단계는 11세기 중반에서 12세기 말에 해당하며, 대접 I, II, III유형과 접시 III, IV, V, VI-1유형, 완 IV, 잔 II, III, IV-1유형 그리고 잔탁 III 유형과 뚜껑, 마상배 등의 기종이 사용되었다. 2단계의 청자들에 다양한 장식기법으로

61) <경남지역 요지 조사현황>

	유적명	소재지	조사기관	성격	조사연도	추정조업연대
1	부산 덕포리요지	부산광역시 북구 덕포동	일제강점기	지표	1930년대	12C
2	기장군 무곡요지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무곡리	기장문화원	지표	2006	12C
3	남해 독망골 유적	경남 남해군 창선면 수산리	경남문화재연구원	지표	2005	12C
4	남해 이어리 유적	경남 남해군 고현면 이어리	경남문화재연구원	지표	2005	12C
5	양산 화계리요지	경남 양산군 원동면 화계리	통도사정보박물관	지표	2004	12C
6	진해 태평동요지	경남 진해시 태평동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발굴	1998	12C
7	부산 온천동요지	부산광역시 동래구 온천동	부산광역시	지표	2006	14~15C
8	부산 미음동요지	부산시 강서구 미음동	부산광역시	지표	2006	14~15C
9	기장 신리요지	기장군 장안읍 오리	경남문화재연구원	지표	2007	14~15C
10	울주 삼정리요지	울주군 삼정리	울산광역시	지표	2003	14~15C

62) 서남해안에 위치한 강진의 경우도 해로를 이용한 개성으로의 이동에 매우 유리한 요건을 갖추고 있으며, 강진 이외의 서남해안의 요지들도 운송에 이로운 바다와 강과 인접하고 있음에 주목할 수 있다.

표 4.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의 편년

단계	편년	비교
I 단계	10세기 중반~11세기 중반	강진 I·II유형
II단계	11세기 중반~12세기 말	강진 III·IV유형
III단계	13세기 초반~14세기 중반	강진 IV·V유형
IV단계	14세기 중반~14세기 말	강진 VI유형

문양이 장식되었는데 음각기법으로는 수과문, 앵무문, 운학문, 당초문, 연판문죽문이 양각기법으로는 연판문이 장식되었다. 1단계의 양각 연판문은 환조연판문인데 비해 2단계의 연판문은 부조연판문으로 형태와 세부기법의 차이를 보인다. 압출양각기법으로는 국화절지문, 포도문, 연화문, 연판문이 상감기법으로는 국화절지문, 뇌문이 장식되었다. 이 외에 퇴화기법으로는 화문을, 철화기법으로 선문과 당초문을 장식하였다. 번조받침으로는 백색내화토빛음받침, 모래섞인 내화토빛음받침, 규석받침 등이 함께 사용되었는데 이러한 양상은 시기적 변화를 가지면서도 청자의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는 것이다. 모래섞인 내화토를 받친 청자의 경우 대부분 포개어 굽고 있는데 이 시기의 청자생산량의 증가와 관계된 것으로 판단되며, 규석을 받친 경우는 갑번하고 있어 질적인 차이를 보여주고 있다. 경남지역 사지출토 청자의 2단계 양상은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품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며 강진청자 III·IV유형에 해당한다. 강진 용운리 10호-2층의 경우 압출양각기법이 활발히 사용되고 상감기법의 문양이 일부에 시문되고 있는데,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되는 청자들에서도 동일한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용운리 10호-2층에서 출토되는 백색내화토빛음받침, 모래섞인 내화토빛음받침, 규석받침이 동일하게 사용되고 있다. 앞에서 살펴본 강진요지의 청자 생산을 살펴보았을 때 각 요지의 생산이 III유형의 제작시기에 가장 늘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청자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종, 문양의 장식기법과 종류, 번조받침의 변화양상이 2단계의 청자들에서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3단계는 13세기 초반에서 14세기 중반에 해당된다. 기종은 대접의 IV유형, 접시의 II-2, VI-1, VII, VIII유형, 잔의 IV-2유형이 확인되는데 앞의 2단계에 비해

기종이 단순해진다. 문양은 주로 상감기법으로 장식되었는데 여지문, 유로수금문, 운학문, 봉황문, 화훼절지문, 국화절지문, 운학문, 운문 등 다양한 문양이 확인된다. 번조받침으로는 규석과 모래받침을 사용하고 있다. 강진청자의 유형으로는 IV·V유형이 해당되며 3단계의 청자들과 비교되는 편년유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명종지릉출토품(1255년 하한)과 함께 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간지명 청자들 등이다. 규석받침은 14세기전반까지도 고급의 청자에는 사용되고 있다.

4단계는 14세기 전반에서 고려말기인 14세기 말까지에 해당된다. 대접의 V유형, 접시의 VIII유형이 확인되는데 기종이 매우 단순화되었다. 접시의 VIII유형의 경우 3단계에도 제작되었지만 4단계에는 외면의 면각이 둔중해지고 내면에만 팔각접시의 여운이 남아있는데, 이러한 형태는 조선초기까지도 이어진다. 문양은 3단계에 장식되었던 문양들 가운데 국화절지문, 연판문 등이 이어지는데, 문양이 도식화되고 일부에 인화기법을 사용하는 등 청자의 쇠퇴양상이 그대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려말기에서 조선초기로 이어지는 문양인 연당초문은 靑磁象嵌連唐草文‘正陵’銘대접(1365~1374)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다. 번조받침으로는 모래받침이 사용되는데 대부분이 포개구웠으며 번조상태가 좋지 않다. 특히 4단계의 시기에는 왕실용 자기인 ‘正陵’銘 대접의 경우에도 모래받침을 사용하고 갑번하지 않고 있어 시기적으로 청자의 쇠퇴양상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다. 강진청자는 VI유형에 해당한다.

지금까지 4 단계별로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의 특징을 살펴보았다. 이를 종합한 것이 <표 5>이다.

## VI. 맺음말

지금까지 경남지역에 위치한 사지 7곳 즉, 부산 만덕사지, 사천 본촌리폐사지, 산청 지곡사지, 울산 운흥사지, 합천 영암사지, 김해 덕산리사지, 부산 용당동유적 등에서 출토된 청자의 기종, 문양, 번조법의 특징을 분석하여 이들의 제작지와 제작시기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들 사지 출토품 가운데 강진산 청자로 막연히 추정하였던 청자편의 실체를 분명히 밝히기 위해 강진청자 및 편년유물과의 면밀한 비교·검토를 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첫째,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는 제작요지가 대부분 강진 생산품으로 확인

<표 5>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의 편년과 단계별 특징

단계 특징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10세기	11세기	12세기	13세기	13세기	14세기	14세기	14세기
기 종	접시							
	완							
	잔							
잔 탁								
문양	양각 : 연판문							
번조받침	백색내화토빛음받침							
기 종	대 접							
	접 시							
	완							
	잔							
기 타								
문양	음각 : 수파문, 앵무문, 운학문, 당초문, 연판문, 죽문 양각 : 연판문 압출양각 : 국화절지문, 포도문, 연화문, 연판문 상감 : 국화절지문, 뇌문 퇴화 : 화문 철화 : 선문, 당초문							
번조받침	백색내화토빛음받침, 모래쉬인 내화토빛음받침, 규석받침							
기 종	대 접							
	접 시							
잔								
문양	상감 : 여지문, 유로수금문, 운학문, 봉황문, 화훼절지문, 국화절지문, 운학문, 운문							
번조받침	규석받침, 모래받침							
기 종	대 접							
	접 시							
문양	상감 : 연당초문, 국화절지문, 연판문							
번조받침	모래받침							

되었고, 일부는 진해 태평동과 남해 이어리 등의 경남지역 생산품이라는 점을 명백히 밝힐 수 있었다.

둘째, 각 기종별 변천과 문양, 번조법의 분석을 통해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들은 시간의 추이에 따라 4단계로 편년할 수 있었다. 1단계는 10세기 중반에서 11세기 중반까지의 시기로, 강진청자 I·II유형과 강진 용운리 9호, 10호-1층의 특징과 유사한 청자들이다. 2단계는 11세기 중반에서 12세기 말에 이르는 시기로,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품들과 밀접한 관계를 보여주고 강진 청자 III·IV유형에 해당한다. 청자 생산량의 증가와 함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기종, 문양의 장식기법과 종류, 번조받침의 변화양상이 다양하게 나타난다. 3단계는 13세기 초반에서 14세기 중반에 해당한다. 강진청자 IV·V유형과 일치하며, 3단계의 청자들과 비교되는 명종지릉출토품(1255년 하한)과 14세기 전반에 제작된 간지명 청자 등 편년유물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 4단계는 14세기 전반에서 고려말기인 14세기 말까지 해당한다. 고려말에서 조선초로 이어지는 연당초문은 靑磁象嵌連唐草文‘正陵’銘대접(1365~1374)과 유사함을 보여주고 있으며, 왕실용 자기의 경우에도 모래받침을 사용하고 갑번하지 않고 있어 시기적으로 청자의 쇠퇴양상을 보여준다. 강진청자 VI유형에 해당한다.

셋째, 경남지역 사지 출토 청자 중에는 진해 태평동과 남해 이어리 등의 청자요지 생산품이 확인되었고, 이들은 11세기 후반~12세기의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 강진청자에 대한 수요와 함께 경남지역에서 생산한 청자도 소비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국가 공납을 위해 제작된 강진청자는 고급의 청자로서 그 당시 청자의 기준이자 가장 선망된 청자였을 것이다. 따라서 경제력을 가진 귀족집단이나 사찰에서는 고급의 청자를 사용하였을 것이며, 상거래 등을 통해 사들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청자에 대한 수요는 지역가마에서의 청자조업을 유발시켰고 다양한 청자의 사용을 위해 경남지역에서 생산한 청자도 사용했던 점이 파악되었다. 그러나 지역가마에서 제작된 청자들은 강진청자를 모방하기도 했으나 강진산에 비해 질적으로 우수하지 못했다. 이러한 양분화 된 청자의 생산과 사용은 당시 청자의 제작환경 및 유통과의 밀접한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되나 정확한 증거나 기록이 남아 있지 않아 현재로서는 추정적인 가설로 제시할 수 있다.

넷째, 경남지역 사지 출토의 청자는 주로 강진산 청자이며 일부만이 경남지역 요지 생산품이다. 사찰에서 사용된 청자가운데 고급 청자는 강진산일 것이라는 그동안 막연한 추정을 구체적 분석을 통해 증명하였고, 각 유형의 편년을 제시할

수 있었다. 아울러 진해 태평동요지에서 생산된 청자와 경남지역 사지에서 출토된 청자와의 비교를 통해 제작지와 제작시기에 대해 새롭게 편년을 설정하였다.

■ 투고일 2008년 1월 10일 | 심사완료일 2008년 2월 11일 | 게재확정일 2008년 2월 29일 ■

## 參考文獻

### 1. 史料 및 辭典

『高麗史』

雄獅圖書公社, 1991, 『中國工藝美術辭典』.

### 2. 圖錄 및 單行本

康津靑磁資料博物館, 2000, 『高麗靑磁 康津으로의 歸鄉 -銘文·符號 특별전』.

\_\_\_\_\_, 2001, 『청자빛 하늘에 담긴 구름과 학-靑磁雲鶴紋特別展』.

\_\_\_\_\_, 2002, 『고려청자와 종교』.

\_\_\_\_\_, 2003,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瓷』.

康津靑磁博物館, 2006, 『강진 고려청자500년-강진 청자요지 발굴유물 특별전』.

\_\_\_\_\_, 2007, 『강진청자박물관명품도록』.

國立海洋遺物展示館, 2003, 『務安 道里浦 海底遺物』.

國立光州博物館, 2006, 『천년의 세월, 그 빛, 날다-강진삼흥리 가마터 출토유물전』.

國立全州博物館, 2006, 『전북의 청자, 다시 찾은 비취색 꿈』.

용인대학교 박물관, 2004,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조선관요박물관, 2005, 『청자의 色形』.

姜敬淑, 1989, 『韓國陶磁史』, 一志社.

\_\_\_\_\_, 2000, 『한국도자사의 연구』, 시공사.

\_\_\_\_\_, 2005, 『한국 도자기 가마터 연구』, 시공사.

박종기, 2002, 『지배와 자율의 공간, 고려의 지방사회』, 푸른역사.

張南原, 2006, 『고려중기청자연구』, 혜안.

### 3. 報告書

- 국립중앙박물관, 1996,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도판편』.  
\_\_\_\_\_, 1997, 『강진용운리청자요지발굴조사보고서-본문편』.
- 국립경상대학교박물관, 1997, 『사천본촌리폐사지』.
- 국립창원대학교박물관 · 진해시, 1999, 『진해 태평동요지』.
- 국립창원문화재연구소, 2003, 『운흥사지 발굴조사 보고서』.  
\_\_\_\_\_, 2003, 『산청지곡사지』.
- 국립광주박물관, 2004, 『강진 삼흥리요지Ⅱ』.
- 경남문화재연구원, 2005, 『남해군 도요지 정밀지표조사』.  
\_\_\_\_\_, 2006, 『김해 덕산리사지』.  
\_\_\_\_\_, 2007, 『부산 용당동유적』  
\_\_\_\_\_, 2007, 『기장 장안읍 도요지정밀지표조사』
- 경남발전연구원역사문화센터, 2006, 『양산신기동건물지』.  
\_\_\_\_\_, 2006, 『梁山勿禁佳村里遺蹟-양산가촌리공동주택부지내』.
- 경기도박물관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2, 『高達寺址 I』.
- 기전문화재연구원, 2007, 『高達寺址Ⅱ』.  
\_\_\_\_\_, 2007, 『용인보정리청자요지』.
- 동아대학교박물관, 1985, 『합천영암사지 I』.  
\_\_\_\_\_, 2005, 『합천영암사지Ⅱ』.
- 문화공보부 · 문화재관리국, 1985, 『완도해저유물-발굴보고서』.
- 목포대학교박물관 · 전라남도해남군, 1992, 『해남진산리 녹청자요지』.
- 부산직할시립박물관, 1993, 『부산만덕사지』.
- 부산광역시립박물관, 1998, 『부산만덕사지Ⅱ』.
- 북천박물관, 2007, 『부산만덕사지Ⅲ』
- 圓光大學校博物館, 2001, 『扶安 鎮西里 靑磁窯址-第18號 窯址 發掘』.  
\_\_\_\_\_, 2001, 『扶安 柳川里 7地域 靑磁窯址群 發掘調査報告書』.
- 충북대학교박물관, 2002, 『음성생리 청자가마터』.
- 通道寺聖寶博物館, 2004, 『梁山の 歴史와 文化』.
- 해강도자미술관, 1992, 『강진의 청자요지』.
- 호남문화재연구원, 2004, 『강진 삼흥리요지 I』.

#### 4. 論文

- 구민정, 2003, 『고려시대 향완 연구』, 동아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김영원, 2006, 『고려의 부안 청자』, 『전북의 고려청자-다시찾은 비취색 꿈』, 국립전주박물관, 188쪽.
- 金允貞, 2006, 『高麗後期 象嵌靑磁에 보이는 元代 磁器의 영향』, 『美術史學研究』249, 한국미술사학회, 185~186쪽, 197.
- 朴敬子, 2003, 『14世紀 康津 磁器所의 해체와 窯業 체제의 二元化』, 『미술사학연구』238·239, 한국미술사학회.
- 朴芝英, 2005, 『高麗 陽刻靑磁 研究』,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백은경, 2004, 『高麗 象形靑磁 研究』, 弘益大學校 碩士學位論文.
- 李鍾玟, 2004, 『高麗時代 寺址 出土 磁器의 器種과 性格-생산과 소비의 관점에서』, 『흙으로 빛은 우리 역사』, 용인대학교 박물관.
- \_\_\_\_\_, 2004, 『11-12세기 粗質靑磁의 계통과 편년』, 『美術史學』18, 한국미술사교육학회.
- \_\_\_\_\_, 2004, 『고려청자의 생산구조와 소비패턴의 변화』, 『도자기의 생산과 소비』(2004년 용인대학교박물관 학술대회), 용인대학교 박물관.
- \_\_\_\_\_, 2007, 『고려 청자장고 연구』 『시각문화의 전통과 해석-정제김리나교수 정년퇴임기념 미술사논문집』, 예경.
- 張南原, 2001, 『“康津유형”의 공유현상을 통해 본 11~12세기 청자의 성격』 『美術史學研究』231, 한국미술사학회.
- \_\_\_\_\_, 2004, 『高麗 中期 壓出陽刻 靑瓷의 性格』, 『美術史學研究』242·243, 韓國美術史學會.
- \_\_\_\_\_, 2006, 『번조반침과 청자의 상관관계-고려중기 강진과 그 외 지역을 중심으로』 『항산안휘준교수정년퇴임기념논문집 미술사의 정립과 확산』.
- 田勝昌, 2002, 『靑磁彫刻 裝飾香爐考察』, 『고려청자와 종교』, 강진청자자료박물관.
- 정정원, 1968, 『경남지방 도자기의 연구-도요지 및 그 출토품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片山まび, 2003, 『北九州地域에서 出土된 高麗靑瓷에 대하여-初期資料에 관한 編年問題를 중심으로』, 『對外交渉으로 본 高麗靑瓷』(제8회 강진청자문화제와 박물관 개관 6주년 기념 한·중·일 국제학술대회), 강진청자자료박물관.
- 韓盛旭, 2001, 『高麗後期 靑瓷의 기형변천』, 『미술사학연구』232, 한국미술사학회.



사진 1. 청자상감운학문 '壬申'銘 접시(1332), 김해 덕산리사지 출토



사진 2. 청자철화당초문대접, 부산 용당동유적 출토



사진 3. 청자철화당초문대접, 양산 물금 가촌리유적 출토.



사진 4. 청자철화당초문대접, 진해 태평동 요지 출토.



사진 5. 靑磁象嵌荔枝枝文대접 (1255년하한), 明宗 智陵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5-1. 세부.



사진 6. 靑磁象嵌花卉折枝文'己巳'銘  
대접(1329), 해강도자미술관.



사진 6-1.세부.



사진 7. 靑磁象嵌蓮唐草文'正陵'銘대접  
(1365~1374),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7-1.세부



사진 8. 靑磁象嵌'丁亥'銘 접시(1347)  
(내·외), 전남대학교박물관.



사진 9. 청자 접시, 仁宗 長陵 출토 (1146년 하한),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0. 청자사선형접시(내·외),  
明宗 智陵 출토(1255년하한),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1. 靑磁象嵌菊花折枝文'己巳'銘  
접시(1329)(내·외), 해강도자미술관.



사진 12. 靑磁象嵌菊花文'丁亥'銘  
팔각접시(1347)(내·외), 고려대학교박물관소장.



사진 13. 靑磁象嵌雲鶴文'壬申'銘 盞(1332)(내·  
외), 호림박물관.



사진 14. 청자상감국화문잔타,  
산청 지곡사지 출토.



사진 15. 청자매병뚜껑 2점,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6. 청자매병뚜껑(내·외),  
김해 덕산리사지 출토.



사진 17. 청자양각연판문향로,  
김해 덕산리사지 출토, 경남문화재연구원.



사진 18. 靑磁陽刻蓮瓣文香爐, 高 15.2, 口徑 10.5,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19. 靑磁陽刻蓮瓣文龍形蓋香爐, 高 29.5, 底徑 18.3, 국립중앙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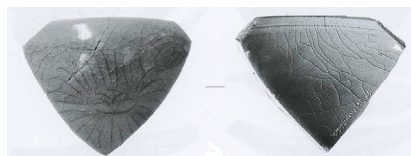


사진 20. 청자향완, 부산 용당동유적 출토

사진 21. 청자음각수파문잔(내·외), 합천 영암사지 출토



사진 22. 청자음각수파문잔(내·외), 강진 용운리 10호-2층 출토,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3. 靑磁陽印刻雲鶴文완,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4. 靑磁象嵌蒲柳水禽文'癸酉'銘  
대접(1333)(내·외), 개인소장.



사진 24-1.



사진 25. 靑磁象嵌雲鳳文'壬申'銘高足杯  
(1332)(내·외), 호림박물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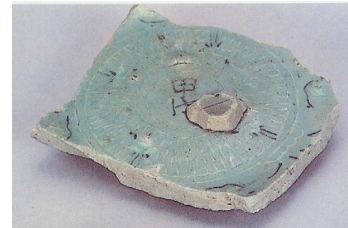


사진 26. 靑磁象嵌雲鶴文'甲戌'銘접시  
(1334), 해강도자미술관



사진 27. 松廣寺 慈靜國師妙光塔 출토  
靑磁象嵌雲鶴文盒(1301), 국립중앙박물관.



사진 28. 청자상감운봉문대접,  
무안 도리포 해저 출토 (1347~1365),  
국립해양유물전시관.



사진 29. 靑磁象嵌花卉折枝文‘己巳’銘  
대접(1329)(내·외), 호림박물관.



사진 29-1



사진 30. 청자퇴화문 접시 및 잔,  
熙宗 碩陵 출토(1237년 하한), 국립문화재연구소.

Abstract

## Recording Chronologically and Characteristic of The Celadons Excavated from Temple Site in Gyoengnam Region

Kang, Jung-mi

Recently, the spectrum of studies on Koryo Celadon is broadened, steering away from the existing trends to study the origination of Koryo Celadon, issues related to the period when Gan Ji Myong Celadon (Celadon with inscribed Chinese zodiac names), and Celadon as historical artifacts, to include the studies from the views that are focused on the production and consumption structures. In the midst of such trend, the sample ceramic pieces excavated from sites where Buddhist Monks, the main consumer of high quality Celadon, used to reside, are serving as the standards of comparison analysis for demands and supply structures by different periods.

Until now, places like the lost temple of Bohchonniin Sachon, Jigok Temple of Sanchong, Wunneung Temple of Ulsan, Youngam Temple of Hapchon, Doksanni Temple of Gimhae, Mandok Temple of Busan, and Yongdangdong relic of Busan in South Gyongsang area are determined as the places where the Celadon were widely used during Koryo Dynasty. The Celadon pieces excavated from these relics are very diverse in its produces times, qualities and styles. Therefore, we could specifically determine the characteristics of Celadon used in South Gyongsang area. This study was intended to determine the place of production and the production period of Celadon excavated from the 7 relics around South Gyongsang area by analyzing and comparing the types, decorating techniques, pottering methods of these Celadon against that of Celadon from other important places and chronological sample relics. The results are as followed.

First, the vast majority of Celadon excavated in South Gyongsang region is confirmed to come from Gangjin. It is also clearly determined that the small portions were produced South Gyongsang region such as Taepyondong of Jinhae and Eori of Namhae.

Second, the Celadon excavated in relics of South Gyongsang region can be recorded chronologically in 4 phases according to the course of development. Phase 1 is the period from mid 10th century to mid 11th century, and the Celadon in this phase are very similar to the styles of what are previously known as Gangjin Celadon I and II. Phase 2 is the period from mid 11th century to late 12th century and the Celadon in this phase fall into the categories of Gangjin Celadon III and IV. Phase 3 are the period from early 13th century to late 14th century and the Celadon in this phase fall into the category of Gangjin Celadon V. Phase 4 is the period from early 14th century to late 14th century, which is the last periods of Koryo Dynasty, and the Celadon in this phase fall into the category of Gangjin Celadon VI.

Third, some of the Celadon excavated in relics of South Gyongsang region is determined to be products of sites such as Taepyondong of Jinhae and Eori of Namhae, and shows the characteristics similar to that of late 11th century to 12th century. Therefore, we could confirm in detail that the Celadon produced from South Gyongsang region were also consumed along with Gangjin Celadon.

Fourth, the Celadon excavated in relics of South Gyongsang region proved, with a through analysis, the vague presumption which has been saying that the high quality Celadon maybe are from Gangjin site. And, this made available updated chronological orders for different styles. We also determined the production sites and chronological orders by comparing the Celadon from Taepyongdong site of Jinhae and the Celadon from South Gyongsang regions against each other.

Key words : Temple Site in Gyoengnam region, Koryo Celadons,  
Gangjin Yongwun-ri site of klin, Jinhae Taepyung-dong